

2002학년도

석사학위(Th.M)청구논문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신론 입장에서 해석된 인간론에 대하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김 경 선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신론 입장에서 해석된 인간론에 대하여

指導 김 영 규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Th.M)論文으로 提出함

2003년 6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김 경 선

김경선의 碩士學位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3년 6월

## 감사의 글

생각지도 못했던 과정에 들어서게 하시고 마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정 내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내용으로 다가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교회라 표방(標榜)하는 교회에서 자랐다 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신앙에 대해, 그런 신앙이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고, 그 내용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을 드러내 주셨다.

막연한 신앙의 내용을 그것 때문에 사는 것으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신 김영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이러한 과정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진행되도록 안팎으로 수고하신 김성봉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또한 미흡한 사람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재선·홍상표·윤석주·김지훈 등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또한 이 공부를 위해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아니한 나의 남편 이혜식 선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엄마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 주고, 학사일정을 챙겨주며 잘 자라 준 아들 이동규에게 사랑을 전한다.

2003년 6월

김 경 선

# 목 차

I. 서 론	1
A. 문제 제기	1
B. 연구목적 및 방향	3
C. 논문의 전개와 그 과정	5
II. 본 론	6
A. 역사적 인간론의 입장들	6
1. 칼빈이 본 어거스틴의 인간론	6
a. 어거스틴의 일반적인 입장	6
b. 인간의 원죄는 자연적 유전에 의하여 전달되었다	11
c. 인간의 본성은 전적 타락과 완전 부패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15
d. 선한 열매를 위한 은총은 의지에 앞선다	21
e. 인간의 의지는 노예의지 뿐이다	26
2. 칼빈이 본 로마 카톨릭의 인간론	30
a. 일반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도구이다	30
b. 회개는 주의 자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32
c. 칭의는 하나님의 의에 전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4
d. 공로란 말은 성경에 없으며, 위험한 말이다	37
e. 보상은 하나님께서 자기백성을 긍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39
B.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신론과 관계된 인간론	41
1. 칼빈의 인간론의 특징	41
a. 칼빈의 인간론은 철저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근거로 한다	41
b.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목적은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44

c.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영혼 안에 생득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48
d.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빛난다.....	54
e.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게 한다.....	57
f.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선행의 근원이 은총임을 가르친다.....	62
<b>C. 율법의 제 3 사용과 인간에 관한 지식.....</b>	<b>70</b>
1.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70
a. 율법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70
b. 율법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상의 기관으로 정의된다.....	71
c.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73
d.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74
e. 율법의 제 3 사용과 인간의 지식과의 관계.....	75
<b>III. 결 론.....</b>	<b>78</b>
<b>참고문헌.....</b>	<b>81</b>

# I. 서론

## A.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적 형태는 밖으로는 교회성장으로, 그 내용으로는 인본주의적인 신앙형태로 인간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형태로 되어 간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교회 성장에 주요 원인이 되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집중하고, 전도와 선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전략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를 파악하며, 이 시대와 사회가 요청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변화하는 추세이다. 즉 교회도 변화하는 사회의 주역인 인간에 맞추어 변화하여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며, 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해야 교회가 도태되는 위험에서 건널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형태에서 인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내용이 자리를 바꾸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교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불신자들을 교회에 불러들이기 위해 불신자들의 기호에 맞는 예배로, 설교도 이 본문이, 이 성경의 진리가, 이 교리가 인간의 실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로, 그리고 예배의 내용이 사람의 감성을 채워주는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예배 형태로, 또한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는 은사위주의 예배로, 그 주류를 이루어 가고 있는 추세라 하겠다. 또한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교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겨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익명을 따르고, 신분에 따라 특별한 예배를 요구하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교회는 계속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역을 산출해 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인간인자의 한계성에 주목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그러한 변화와 노력은 인간화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로 인한 결과에는 인간이라는 인자가 항상 변하지 않는 상수로 자리 잡고 있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롬10:2)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헛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형태는 신앙의 근본정신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 분 밖에서는 아무 것도 찾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와 찬양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sup>1)</sup> 고 하였다.

루터는 이신칭의로 그 시대의 부패된 교회관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이끌어 내었지만, 인간론을 극복하지 못한 차원에 머무르고 말았다. 성경은 인간이 인간을 살펴서는 인간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인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신론을 통한 인간을 칼빈의 사상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이는 칼빈의 인간론을 파악하는 것으로 사람의 제 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바른 고백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칼빈이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근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신학은 루터주의 신학이 지금까지도 극복하지 못하고 현대에 거의 지배적인 복음주의 신학에서 극복하지 못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과 공역에 대한 사상을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두 부분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인간의 관한 지식보다 앞서서 것이 정당한 순서라는 것을 살펴보므로 사람이 “힘입어 살고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중흡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p.85. 이하 기독교 강요.



알 수 없는 인간이 분명히 하나님은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인간은 칼빈이 말하는 이러한 정당한 순서에 의하지 않고 우회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알려는 지식을 추구하여 왔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는 내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인간에 관한 지식을 거슬러 역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을 알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 B. 연구목적 및 방향

이 논문의 목적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인간과 관련이 되어 있어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목적, 죄성 그리고 인간의 선행, 의지 등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칼빈의 사상을 그의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깊이 다루어 봄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인간이라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통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신론을 통해서만이 죄인 된 인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주어진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높은 차원으로 요청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현대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밝혀 내는데 성과를 올렸다. 인간 유전자의 해독을 완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성의 구별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인간의 수명, 각자의 신체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해독하게 되었다. 동시에 자유나 감정을 일으키는 등 인간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기능들이 돌아가는 공장의 구조들에 대한 설계도가 하나의 칩으로 저장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 게놈

2) 김영규, 「신학과 현대 과학」,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원, 2002) p.18. 이후 신학과 현대과학, "창조 기록은 인간이 기동하고 생각하며 의지로 행동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은혜로 준비하시고 부여주셨는가를 증거 한다.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고 있고 그 인격성의 발휘내용이 하나님의 속성들만큼 높은 속성들의 발휘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이다"

프로젝트(Genome Projet)의 결과가 내놓은 잠정적 결론은 인간유전자 수가 예상과 달리 낮게 나타났고, 유전자의 수나 신경세포의 수, 세포유형들의 수는 인간의 구조적 혹은 행동적 복잡성의 단순한 측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인간의 유전자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준위들과 여러 연결 속에 있는 기능망에 인간비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 첨단과학이 인간에 대해 밝혀낸 내용의 정도이다. 그러나 성경이 지향하는 인간의 가치화의 과정은 다르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인간 스스로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갖는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과학은 발전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 조금도 손상을 주지 않고 그 분이 이루는 뜻과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그 분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하나님만이 그 부와 보상으로 있는 인간으로 발전할 때의 인간으로까지 높이고 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간으로 만들기까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sup>3)</sup>조차 그런 가치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주신 것이다.<sup>4)</sup> 이것이 과학이 인간에 대해 제시하는 유익이나 물음과 근원적으로 다른 성경에서 고유하게 주어지고 있는 내용의 형태이다<sup>5)</sup>. 이처럼 과학과 사회의 변화 속에 사회가 기독교에 요청하는 대답은 사회가 묻는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얻는 같은 수준의 해답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인간의 본질과 가치를 인간론을 중심으로 보려는 것을 이런 성경의 내용인 신론을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

3)신학과 현대과학, p.13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런 은택들의 가장 고귀한 틀이다. 하나님이 그저 주신 모든 은택들을 스스로 누리는 것처럼 살도록 하신 은택들의 틀이다. 그렇게까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을 사랑하신다. 신비의 미시세계로부터 감추어진 거시세계의 신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하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의지의 출발과 내용조차도 자신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춰진 상태로 인간이 스스로 누리는 것처럼 사는 영원한 틀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4)Loc. cit.

5)Ibid., p. 14.

### C. 논문의 전개와 그 과정

논문의 전개는 이러한 인간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오는 단기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규명되어진 뿌리 깊은 인간 중심적인 흐름에서 기인되는 것을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인간론을 다루어 그 뿌리와 그 분명한 차이를 알아 본 후, 그런 인간 중심적 신학의 내용을 카톨릭의 인간론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논하고, 칼빈의 인간론이 신론과 어떻게 연결되어 그 독특성을 나타내는지, 그리하여 그가 본 인간의 가치의 근거와 그 가치의 수준이 어떤 높이이며 완전함인지 그의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루려 한다. 이러한 칼빈의 신론을 통한 인간론의 독특한 내용을 소개한 후, 율법의 제3사용이 어떻게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그 유익이 되는지 알아보고 그로 인해 인간의 관한 지식을 바르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고찰하려 한다. 즉 율법의 제 3 사용이 인간에 대한 지식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과 그로 인한 인간에게 주는 유익과 가치를 알아보려 한다.

## II. 본 론

### A. 인간론에 대한 입장들

#### 1. 칼빈이 본 어거스틴의 인간론

##### a. 어거스틴의 일반적인 입장

칼빈의 신학적인 사고에 기반이 되는 어거스틴의 신학적 구조와 인간론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초대교회가 5세기에 들어서면서는, 4세기까지 하나님의 본성, 삼위 일체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하여 논쟁하였던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신학적 논쟁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상호 관계에 관한 인간론의 교리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동방교회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조한 반면, 서방교회는 인류의 타락에 더욱 강조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먼저 인간의 존재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약하고 비참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을 규명하였다<sup>6)</sup>. 반면에 펠라기우스<sup>7)</sup>는 그의 신학 체계에서 인간이 하나

---

6) Augustin,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 김종흡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p.181. 이하 은혜론, 어거스틴은 은총의 총체적인 개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물론 분명하게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활동이 언제든지 인간들의 활동보다 선행적이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역자로 일할 뿐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보다도 선행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인간이 치료받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을 또한 뒤따라오심으로서 인간들이 부름을 받도록 선행적으로 일하시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므로 또한 인간들을 뒤따라오심으로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

님의 계명을 지키는 위하여 세 가지를 구별하였는데, 그것은 가능성, 의욕,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들<sup>8)</sup>로, 가능성은 우리의 본성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 힘으로 좌우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지게 되나, 다른 두 가지 의욕과 행동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단순히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생각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에 넣어 주신 기능은 연약하며, 그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 기능은 강력하고 견고하고 자족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이런 생각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의욕과 행동을 도우시지 않고, 의욕과 행동의 가능성만을 도우신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생각은 바울 사도의 견해와도 다르다고 하였다.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두신다<sup>9)</sup>고 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타고난 가능성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를 의미하는지, 또는 우리의 본성이 어느 정도까지 은혜의 도움을 받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과 교훈임을 알 수 있다<sup>10)</sup>고 하였다. 그러면서 어거스틴 자신은 이 은혜가 율법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1)</sup>. 그리고 그는 펠라기우스가 하나님

---

보라 성경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활동을 다같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다”  
 7) 존 칼빈, 「기독교강요」 김중흡외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8) p.370. 각주8. 재인용. 이하 기독교강요. “Pelagius(354-440년경) 영국출신의 수도사. 아담이 죄로 인해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락했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반대. 그의 사상은 412년과 418년의 카르타고 공의회에서와 418년의 황제 칙령으로 정죄되었다. 그러나 이 이단설에 포함된 개념들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도덕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이단설의 핵심이다.”

8) 은혜론, p.86. “펠라기우스의 용어는 capacity, volition, action ;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알기 쉬운 말로 옮겨서 ability, volition, actuality 라고 했음“

9) 은혜론, p. 87.

10) 은혜론, p. 88.

11) 은혜론, p. 89.

의 은혜를 율법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행동하도록 도와주시는 은총은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은총의 도움이 동반하지 않을 때는 율법에 대한 지식은 도리어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 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는 아주 달라서, 은혜가 돕지 않으면 율법은 무익하고 유해하였다<sup>12)</sup>고 하였다. 우리에게 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은총이 없이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즉 펠라기우스는 우리 속에 선한 의지가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속에 역사 하셔서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원하게 만드시는 것은 미래의 영광이 큰 것을 알리며, 미래의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짐승 모양으로 땅에 붙은 욕망에 쫓리며, 현재에만 집착하는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계시함으로써 우리의 나태한 의지가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격려하도록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하도록 설득하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 하셔서 우리가 선을 원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펠라기우스는 율법과 교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sup>13)</sup>고 어거스틴은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그러나 물론 성경에는 가르치기도 하며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사람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긍정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영광을 믿고 대망 하게 만드는 은혜, 지혜를 계시할 뿐 아니라 사랑하게 만드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성경에서 천국을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믿게 되는 것은 아니며(살후3:2), 성경의 권고의 말씀을 듣는 자가 모두 설득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sup>14)</sup>고 지적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진리에 사람이 작용하는 여지를 긍정하지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들은 모든 자가 아니라 택한 받은 자만이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다.

---

12) 은혜론, p. 90.

13) 은혜론, pp. 91-92.

14) Loc. cit.

어거스틴의 신학체계는 모든 선의 원천인 하나님에게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일반적인 은총으로 보았다. 이 은총은 그의 교리적인 발전의 각 단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에게는 은총 중심적인 원리를 근간으로 해서 세운 신학이 언제나 그의 신학에 일관성을 갖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거스틴은 이와 같은 그의 신학적 체계를 통해서 펠라기우스의 인간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자유의지에 국한시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추구할 것이며,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계명과 교훈 안에 국한시켜 인간의 의지가 선한 것을 지향하게끔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sup>15)</sup>. 그러나 어거스틴 자신은 우리의 된 것과 우리의 살아 있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 등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또한 우리가 사람이며 부유하며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죄 이외에 없다<sup>16)</sup>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교묘한 언어를 사용하여 어거스틴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자기들의 개념을 계속 세워 나갔던 것이다. 즉 그들은 은총을 주장하는 어거스틴의 이론을 긍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선(善)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에 대해 그의 은총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이 죄가 아담으로부터 유래되어,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필요로 하며, 이 은총은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값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며, 이 선물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어지

---

15) Warfield, B.B., 「칼빈 루터 어거스틴」, 한국칼빈주의 연구원편역, (기독교문화협회, 1993). p.61. 이하 칼빈 루터 어거스틴. “이와 같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변형된 주장을 워필드는 “반(半:semi)-펠라기우스주의”라고 지적하였다“.

16) 칼빈 루터 어거스틴, p. 62.

는 것도 아니다”라는 한 것은 인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로를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예견하는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다<sup>17)</sup>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간파하였다. 이 내용을 칼빈의 입장에 비쳐보면, 그들의 교묘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이 죄가 아담으로부터 유래되어,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필요로 하며, 이 은총은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값없는 것이며 또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며, 이 선물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교묘한 내용이 후대 교회에 인간론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음을 주지하게 된다. 어거스틴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완벽한 자유의지 안에 국한시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간들에게 무엇을 추구할 것이며 무엇을 과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계명과 교훈 안에 국한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할 것을 지향하게끔 한다.<sup>18)</sup>라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총보다 강조하는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어거스틴이 제시한 인간론에 대해 워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이 위에서 제시하였던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된 것과 우리가 살아 있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며 우리가 부유하게 살며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외에 우리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은 모든 선의 원천인 하나님에게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핵심적 인간론의 내용으로 보았고, 또한 인간의 공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그는 은총이 인간의 공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총은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성격이라고 증거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은총과 자유의지를 다 같이 옹호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만을

17) Augustin, 「어거스틴의 은총론」, 차종순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p. 38. 이하 은총론.

18) 칼빈 루터 어거스틴, p.61.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다른 한쪽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sup>19)</sup>고 워필드는 보았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은총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의 총체적인 체계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사람은 자유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의지를 주어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20)</sup>고 하였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부패하였으며 그 부패한 본성은 후손에게 유전되어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그는 인간을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인간론을 이해하려면 그의 원죄론을 짚어 보아야만 할 것이다.

b. 인간의 원죄는 자연적 유전에 의하여 전달되었다(De peccato originali).

칼빈은 최초의 죄가 원죄이다<sup>21)</sup> 라고 정의한다. 이 최초의 죄란 이전의 선하고 순수했던 본성을 잃어 버렸다는 뜻인데, 아담이 그의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던 것이 창조주와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 아담이 하늘과 땅의 전체적인 자연 질서에 위배했을 때, 그 반역으로 인해 인류를 파멸에 몰아 넣게 된 것이다<sup>22)</sup>.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롬8:20-22)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에 편만한 저주는 아담의 죄에서 흘러 퍼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져 후손까지 끌어넣어 불행에 잠기게 만든 것<sup>23)</sup>이다. 이것은 물려받은 부패이며, 이것을 교부들은 원죄라고 불렀던

---

19) 칼빈 루터 어거스틴, p.63.

20) 은혜론, p.119.

21) 기독교강요, p.369.

22) Loc. cit

23) Loc. cit.

것이다. 어쩌면 한 사람의 죄책으로 모든 사람이 죄책을 지게 되어 죄가 공통한 것이 된다는 것은 상식과 거리가 먼일 같다. 그래서 많은 분쟁이 있었다<sup>24)</sup> 특히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그 자신의 손실을 초래했을 뿐 후손은 해하지 않았다는 망상을 들고 나오기까지 하였다. 그는 실제적인 죄가 첫 사람으로부터 자연적인 유전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즉 그는 그 전달은 모방에 의한 것이지 번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이다.<sup>25)</sup> 그러나 칼빈은 어거스틴을 들어 그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어거스틴은 죄와 사망을 들여온 소개자는 “인류의 증식”을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인 아담이었다고 확증해주고 있다.<sup>26)</sup>고 하였다. 이것은 원죄에 대한 중요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빈은 어거스틴이 우리가 외부에서 온 사악으로 인해서 부패한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타고난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서, 이 점을 부인한다는 것은 지극히 파렴치한 짓이라고 하였다.<sup>27)</sup> 그리고 다윗의 고백 중에도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는 귀절은 다윗이 자기의 부모의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잉태된 때부터 악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가 인류의 공통된 처지를 대표한 것이다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인간의 시조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뿌리였기에 따라서 그가 부패한 때에 인류가 당연히 부패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며, 그러므로 불순한 씨의 후손인 우리는 날 때부터 죄에 전염되어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웠고 오점이 많았다<sup>28)</sup>고 보는 것이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본성의 잘못과 타락에 기인하지 않고 아담을 따라 모방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과 어거스틴이 원죄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

24) 기독교강요, p.370.

25) Loc. cit.

26) 은혜론, p. 246.

27) op. cit. p. 370.

28) 기독교강요, p. 371.

여 “증식되어 전달된 것(propagatio, propagation)”이라고 확증하고 있는<sup>29)</sup>것을 롬5:12절 말씀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거스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 되는 것이 오로지 모방에 의한 것이라면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써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sup>30)</sup> 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그들의 잘못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원죄에 대한 것은 유아세례에 의해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 펠라기우스는 경건한 부모에게서 자녀가 부패를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칼빈은 자녀는 부모의 중생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육적 번식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sup>31)</sup>라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어거스틴도 죄 있는 불신자든 죄 없는 신자든 사람은 썩은 본성에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무죄한 자녀가 아니라 유죄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 부모의 성결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한 축복으로 인류가 받은 보편적 저주가 먼저 있어 죄책은 자연에서 오지만, 성결은 초자연적인 은총에서 온다<sup>32)</sup>고 설교하였다. 또한 펠라기우스가 갓 태어난 유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유전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범한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거스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5:32) 라는 말씀을 가지고 유아도 동일하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증거하였다. 즉 세례는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 하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벧전3:21)라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

---

29)은혜론, p. 248.

30)은혜론, p. 258.

31)기독교강요. p.374.

32) 기독교강요, p.374.

여 결국 유아들도 죄에 대한 사함을 받지 않으면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51:5)라는 말씀은 유아들도 원죄를 소유하였으며 이 원죄를 사면 받기 위해서 세례를 필요로 한다고 어거스틴은 증거한 것이다. 펠라기우스의 죄관의 특징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자유의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sup>33)</sup>이라 한다면, 어거스틴은 원죄를 육욕<sup>34)</sup>이라 불렀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이해력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육욕으로 더럽혀지고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전적으로 인간은 육욕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칼빈은 우리는 죄가 어느 정도로 지성과 심정을 점령하였는지 알 수 있는데, 나는 인간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한다는 것만을 시사한다<sup>35)</sup>고 인간의 전적타락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락했으며 부패했지만 그렇다고 본성(천성)에서 타락이 온 것은 아니다. 그 타락은 처음부터 본성 안에 있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첨가된 성질의 것을 가리킨다<sup>36)</sup>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엡2:3)라고 할 때, 본질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부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어거스틴도 사람

33) L.Berkhof,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연적 능력에서 자신의 이론의 출발점을 찾는다. 그의 근본적 전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인간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말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34) 기독교강요, p.376. 각주16 재인용. "어거스틴은 육욕은 우리가 죄 많은 육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넓은 의미로 썼다"

35) Loc. cit.

36) 기독교강요, p. 379.

의 부패한 본성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육을 필연적으로 지배하는 죄들을 ‘선천적’이라고 불렀다.<sup>37)</sup>

c. 인간본성 전적 타락과 완전 부패의 상태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총이 필요하다(De natura et gratia, contra pelagium).

칼빈은 죄가 처음 인간을 노예로 만든 후, 죄의 지배력은 모든 인류에 미쳤을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영혼도 완전히 점령했다고 하였다.<sup>38)</sup> 그러면서 우리가 노예상태로 낮아진 후, 인간은 과연 모든 자유를 빼앗겼는지, 아니면 자유가 조금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느 정도 인지 알아 볼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논제를 다루는데 오류를 피하기 위해, 어거스틴이 지적하였던 두 가지의 위험성을 고려하였다.

그것의 첫째는 사람은 자신에게 올바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 이 사실을 구실 삼아 자력으로는 의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와 무관한 것으로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공로를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게 되며, 사람은 파렴치한 자기 과신으로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sup>39)</sup>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게 하는 태도로 사람에게는 남아 있는 선이 전혀 없고, 극히 비참한 궁핍이 사방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비록 그렇더라도 없는 선을 추구하고 빼앗긴 자유를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그릇된 자랑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인간이 그 자신의 배은(背恩)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극도의 치욕된 상태로 떨어진 지금 겸손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최고의 영예의 최정상에 있을 때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밖에 사람에게 돌린 것이 없다(창1:27)고 한다.

---

37) Loc. cit.

38) 기독교강요, p. 380.

39) Loc. cit.

이 말씀은 인간은 그 자신의 선행들로 인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았을 때에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으며, 받은 축복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적어도 자기의 빈곤을 고백 하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인간에게는 없다<sup>40)</sup>고 칼빈은 인간의 실태를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는 그 옹호자들에게서 힘을 얻기보다는 그들에게 밟히는 편이 더 많다고 하였던 것이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힘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밑바닥에서부터 뿌리뽑혀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의 근본 문제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칼빈은 모았던 것이다.<sup>41)</sup> 이는 자유의지라는 생각의 입헌 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자유의지에 대해 스콜라 학자들은 어거스틴의 정의를 좋아하였는데, 그것은 은총이 없으면 의지는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보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 결정의 힘이란 곧 이성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지적하고 있다.<sup>42)</sup> 그 예로 그들은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은총이 필요한데, 역사(役事)하는 은총과 협력하는 은총으로, 이 구별을 그들은 어거스틴에게서 얻어왔노라 하지만, 이 생각과 어거스틴의 생각은 거리가 멀다고 칼빈은 지적하였다.<sup>43)</sup> 그리고 칼빈 자신은 이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총이 하나의 보조(補助)로서 선행의 의지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분은 선에 대한 효과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은총에 돌리면서 인간은 자기의 본성에 따라 선을

---

40) 기독교강요, p.381.

41) 기독교강요, p. 382.

42) 기독교강요, p. 388.

43) 기독교강요, p.390.

추구하는 것으로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칼빈은 선배들의 해석을 무시하고 자유의지라는 이 말의 어원적 의미에만 집착한 나머지 파멸에 빠진 경험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전하여 주고 있다.<sup>44)</sup>

칼빈은 오해가 없도록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는 어거스틴이 서슴지 않고 의지는 부자유하다고 하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였는데, 그 이유는 오직 아무도 감히 의지의 결정을 부정해서 죄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sup>45)</sup>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한데, 이는 욕망이 수갑을 채우고 정복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의지의 부자유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지가 죄악에 빠져 정복당했을 때 인간의 본성을 그 자유를 잃기 시작했고,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악용하므로 자기와 자기의 의지 모두를 잃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의를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또 율법이 명령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듯이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돕고 사람의 의지가 비록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해방되어 복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는 실현된다고 칼빈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sup>46)</sup> 어거스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은 자유의지의 큰 힘을 받고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 버렸다고 하면서 자유의지는 은총에 의해서 확립된다는 것을 밝힌 후, 은총이 없어도 자기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렬하게 꾸짖었다. 또한 그는 의지가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해방되지는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의로부터는 자유로우나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만 의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구주의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sup>47)</sup> 이것은 어거스틴이

---

44) 기독교강요, p. 392.

45) Loc. cit.

46) 기독교강요, p. 393.

사람의 자유가 의로부터의 해방에 불과하다고 단정한다고 칼빈은 설명하면서, 칼빈 자신은 자유의지란 말에 대해, 이 말은 보존하는 데는 반드시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 칼빈은 나 자신은 자유의지란 이 말을 쓰지 않기를 원하며, 나의 충고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이 말을 피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자유의지라는 용어 사용의 위험성을 개진하고 있다.<sup>48)</sup> 어거스틴도 우회적 표현으로 자주 반복한 말은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아무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사람은 자기의 권리라고 할 것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생명나무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면서 이 나무에 손을 내미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하였는데,<sup>49)</sup> 칼빈은 그리스도교의 교훈을 자신에게 묻는다면 그는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한다고 하면서, 어거스틴도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덕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랑과 교만을 삼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겸손 외에는 자기가 피할 곳이 없다고 진심으로 느낄 때에의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만큼 우리의 행복이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아 지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낮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칼빈은 인간에게 자애(自愛)와 야심의 병을 버리라고 요구한다. 인간에게 이 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는 이 병을 버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진실한 거울 속에서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있다.<sup>50)</sup>

칼빈은 사람의 자연적인 천품은 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서 부패하였으나 초자연적인 천품은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는 어거스틴의 의

---

47) Loc. cit.

48) 기독교강요, p.394.

49) 기독교강요, p. 395.

50) 기독교강요, p.398.



견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을 때에, 동시에 인간의 영적 능력, 곧 영원한 구원을 얻을 희망으로 받은 천품들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나 영혼의 복스러운 생활에 속하는 성질들이 온통 소멸되어, 중생의 은총에 의하여 회복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sup>51)</sup> 그는 이런 성질은 외래적인 것이지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연적 천품의 부패로 지성의 건전성과 마음의 성실성도 동시에 제거되었고, 오성(悟性) 또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의지력과 함께 다소 남아 있기는 하지만 무력할 뿐 아니라 깊은 암흑 속에 빠진 지성을 완전히 건전한 지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며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이성)은 자연적인 천품으로 이것이 완전히 말소될 수 없지만, 일부는 약화되고, 일부는 부패되어 기형적인 잔해가 남아 있다고 말한다.<sup>52)</sup> 또한 의지도 사람의 본성과 떼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않지만 사악한 욕망과 긴밀히 결속되어 바른 일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sup>53)</sup> 그러나 인간의 지성이 비록 그 완전 상태에서 타락하고 부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이 그 진정한 선을 빼앗긴 후에도 주께서 주의 선물을 우리의 인간성에 남겨 두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세례요한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요3:27)라고 한 것은 선물은 자연이 주는 일반적인 천품이 아니고 특별한 조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선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주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룩한 일들을 주입할 힘이 없다는 것을 세례요한이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54)</sup>

---

51) 기독교강요, p. 399.

52) Loc. cit.

53) 기독교강요, p.400.

여기서 칼빈은 펠라기우스파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교훈으로 사람의 이해력을 인도하며, 이런 인도를 받지 않고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의 우매와 무지를 시정하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러나 다윗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거기에는 필요한 모든 지혜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원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5)</sup> 그러면서 칼빈은 물론 인간에겐 의로운 행위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르는 바르게 사는 원칙이 있고, 이 자연법에 의해 사람이 행위의 바른 표준을 충분히 배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 지식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sup>56)</sup>

칼빈은 인간의 지식이 율법에 대해 전혀 무력하다고 하였다.<sup>57)</sup> 그는 완전한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이성을 측정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이성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맹목인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으로는 확실히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중요한 점들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sup>58)</sup>

어거스틴도 인간의 이성에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조명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마음의 눈은 주께서 열어 주시지 않으면 닫힌 그대로 있다고 하였다.<sup>59)</sup> 이에 대해 칼빈은 어거스틴이 진정한 경건에 깊은 전진을 한 그였지만, 이미 받은 지식에서 후퇴하지 않기 위해 그는 매순간 계속적인 인도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였고, 자기의 허물로 잃어버린 바른 정신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였는데, 이는 처음에 주셨다가 우리에게서 일시 빼앗으신 것을 다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60)</sup>

---

54) 기독교강요, p. 411.

55) 기독교강요, p.412.

56) 기독교강요, p. 413.

57) 기독교강요, p. 415.

58) Loc. cit.

59) 기독교강요, p. 417.

d. 선한 열매를 위한 은총은 의지에 앞선다(De gratia et libero arbitrio).

인간의 본성은 부패해 있으므로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갱신할 필요가 있다.<sup>61)</sup> 칼빈은 어거스틴이 죄의 필연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고 소개한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로 죄에 빠졌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형벌인 부패는 자유를 필연성으로 변질시켰다.<sup>62)</sup> 칼빈은 어거스틴의 이 말은 그가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에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는 강제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심정의 가장 간절한 욕구에 의한 것이지 힘에 의한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정욕의 선동으로 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아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인간의 본성은 극도로 부패해서 움직이면 악한일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사람은 죄를 짓는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어거스틴이 본 것이다.<sup>63)</sup> 칼빈은 어거스틴과 같은 생각인 글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즉 모든 생물 중에서 사람만이 자유롭다. 그러나 죄의 개입으로 인해 인간은 일종의 압력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의지가 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의 선천적인 자유는 박탈되지 않았다. 자기의 의지로 하는 일은 또한 자유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의지는 어떤 추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자체의 필연성을 만들어 낸다. 이 필연성은 의지의 필연성이면서도 의지를 변명하지 못한다. 의지는 그릇된 길로 끌려가면서도 필연성을 제거하지 못한다. 이 필연성은 일종의 자원적(自願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명예의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원적 노예 상태의 명예를 멘 것이다. 자유로웠던 의지가 스

---

60) 기독교강요, p.418.

61) 기독교강요, p. 423.

62) 기독교강요, p. 431.

63) Loc. cit.

스로 죄의 종이 된 것이며, 노예인 점에서 우리는 가련하고 의지에 관해서는 변명할 길이 없다. 결론은 그래서 영혼은 어떤 이상하고 악한 방법으로 일종의 자원적이며, 그릇된 자유로운 필연성에 지배되며, 동시에 노예이면서도 자유롭다는 것이다. 더욱 이상하고 한탄스러운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영혼은 유죄하고, 유죄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신기한 말이 아니고,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찬동을 얻어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것이고, 거의 천 년 후에 수도원에서 보존되었던 생각을 칼빈 자신이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64)</sup> 그러나 그릇된 자유 개념에서 출발한 자들은 인간의 의지가 노예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만일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죄는 이제 죄가 아니며, 만일 자원적인 것이라면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이런 의지의 노예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인간성의 부패를 시정하며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찰하고 있다.<sup>65)</sup>

칼빈은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는 의지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66)</sup> 그는 모든 선한 일의 시초는 둘째 창조에서 오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째 창조를 얻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가 증명하였다고 한다.(엡2:5) 그러면서 칼빈은 바울 사도는 인간의 공로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였다고 하였다. 즉 선행의 모든 부분은 그 시초의 움직임부터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이다.<sup>67)</sup> 그리고 칼빈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에서 모든 선행에는 은총이 먼저 작용하고 의지는 은총의 인도자로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종자로서 그 뒤를 따른다는 것에 대해 주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시정, 아니 말소하신다는 것이요, 또한 주께서 친히 주님께로부터 난 선한 의지를 악한 의지와 바꿔 주신다는 의미라고

---

64) 기독교강요, p 432.

65) 기독교강요, p. 433.

66) 기독교강요, p. 434.

67) 기독교강요, p. 435.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개조된 의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의지가 수종자가 되어 앞서가는 은총에 복종하는 것을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sup>68)</sup> 그는 어거스틴이 인간의 의지를 은총의 수종자라고 생각한 것은 선행에 있어서 은총에 다음가는 임무를 의지에 배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제일 원인을 사람의 공로에 돌리는 펠라기우스의 극악한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뿐이었다고 설명한다. 어거스틴은 은총이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선행의 근본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그의 뜻이라고 칼빈은 전한다.<sup>69)</sup> 어거스틴은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서 얻은 진리라고 증언하였다. 칼빈은 자신의 견해도 어거스틴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sup>70)</sup> 칼빈은 성경 전체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므로,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태어난 우리가 선을 원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였다.<sup>71)</sup>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다. 즉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하였다.

선행의 처음 부분은 결심이며 다음 부분은 그것을 성취하는 강한 노력이다. 이 두 부분은 모두 그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결심이나 성취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우리가 주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 된다고 칼빈은 말한다.<sup>72)</sup> 또한 사도가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선행 의지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성령으로 지시하며 굽히며 주관하며 지배하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스콜라 학자가 생각하듯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무차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68) 기독교강요, p. 436.

69) Loc. cit.

70) 기독교강요, p. 437.

71) 기독교강요, p. 438.

72) 기독교강요, p. 440.

하였다. 그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은 하늘 은총의 입김이 불어 주신 사람뿐이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중생 되어 하나님의 인도로 움직이며 주관된다는 것은 분명히 선택된 자들의 특권이라고 하였다.<sup>73)</sup> 이런 이유로 어거스틴은 결심한다는 행동의 일부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롱하였으며, 아울러 또 거저 택하심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였다.<sup>74)</sup>

견인(堅忍) 또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칼빈은 사람이 처음 은총을 받아들일 때 각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견인이 분배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멸시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온 오류라고 보았다. 이런 오류는 그들이 우리가 처음 은총을 감사하며 그 은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데 대한 보상으로의 선물이 따른다고 가르치고, 또한 그 은총은 단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협력할 뿐이라고 첨부한데서 생긴 것이라고 칼빈은 지적하였다.<sup>75)</sup> 이런 견해에 대해 칼빈은 처음 은총을 합당하게 사용 것에 대한 상급으로 나중에 은총을 받는다는 것과 상급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에 효과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며, 신자들이 선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상급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어거스틴이 역사하는 은총과 협력하는 은총이라고 구별한 것은 은총이 점점 더하여진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하였다.<sup>76)</sup> 즉 어거스틴이 사람의 선한 의지보다 하나님의 많은 은사가 먼저 있고 사람의 선한 의지도 그 은사의 하나라고 말한 것은 이런 뜻에 따른 것으로 의지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sup>77)</sup>

73) 기독교강요, p. 442.

74) 기독교강요, p. 443.

75) 기독교강요, p. 444.

76) Loc. cit.

77) 기독교강요, p. 445.

그러나 칼빈은 펠라시우스파들은 사도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는 말씀을 그들은 자기들의 뜻에 맞도록 곡해하여,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낫다고 말하면 교만하게 들리기에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은총에 돌리면서 자기를 은총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동지라고 불렀다고 해석한다고 하였다.<sup>78)</sup> 그러나 사도는 은총이 자기와 함께 수고해서 자기를 동역자로 만들었다고 쓴 것이 아니라, 수고한 공로를 전부 은총에만 돌리는 의미에서 썼다고 하였다.<sup>79)</sup>

어거스틴도 이 점을 분명히 하여 사람의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은사보다 앞서는 때가 많지만 모든 은사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고, 앞서는 그 의지 자체도 그런 은사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의지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칼빈은 전하고 있다.<sup>80)</sup> 어거스틴은 만일 아담이 선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그렇게 할 은총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거나 거절하거나 자유로 선택하도록 은총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선택과 결심을 다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거기에 따르는 선행은 은총의 결과와 결실이다. 그리고 은총에 복종하는 의지는 은총이 만들어낸 의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 다른 곳에서 우리의 모든 선행을 실현하는 것은 은총뿐이라고 하였다.<sup>81)</sup> 이것은 사람의 의지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총에 의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또한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은총은 주신 사람들에게는 행위의 가치에 따라서 난 의지의 가치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은총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하였

---

78) Loc. cit.

79) 기독교강요, p.446.

80) Loc, cit.

81) 기독교강요, p. 447.

다.<sup>82)</sup> 어거스틴은 우리의 행동은 일일이 은총이 필요하며, 은총은 우리 행위의 보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하였다. 즉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께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은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3)</sup>

칼빈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 하시는 형태에 대해, 어거스틴은 죄는 하나님의 허락과 용인에 의할 뿐 아니라, 또한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일종의 벌로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논증하였다고 하였다.<sup>84)</sup> 칼빈 자신은 하나님의 광명이 제거되면 인간에게는 암흑과 맹목 상태뿐이며, 하나님의 영이 제거되면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비틀리고 구부러진다고 하였다.<sup>85)</sup>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지배하신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싫든 좋든간에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고무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sup>86)</sup> 어거스틴도 이에 대해 성경을 착실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만드시고 선하게 된 의지를 선한 행동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므로 선한 의지들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며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의지들까지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87)</sup>

e. 인간의 의지는 노예의지뿐이다.

칼빈은 잘못된 자유개념은 가진 자들이 인간의 의지가 노예상태라

---

82) 기독교강요, p. 448.

83) 기독교강요, p. 449.

84) 기독교강요, p. 453.

85) 기독교강요, p. 454.

86) 기독교강요, p. 458.

87) 기독교강요, p. 459.



는 것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하였다.<sup>88)89)</sup> 참다운 자유의지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용어를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큰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sup>90)</sup>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문제는 우리가 결심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 결심할 수 있는나의 문제라고 하였다. 그가 모든 점에서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경향이 자유로우냐고 묻는 것이고 하였다.<sup>91)</sup> 그는 사람의 자유 선택의 능력은 사람의 내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외면적인 성공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우리가 자유의지를 논할 때, 외부의 방해가 있더라도 사람이 결심한 일을 모두 실현하며 완수하는 것이 허락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것으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란 없고, 인간의 의지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sup>92)</sup>

칼빈은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주장하는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주고 있다. 먼저 저들이 어거스틴이 죄의 필연성과 자원성에 대해 설명한 것을 가지고 만일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죄는 죄가 아니며, 만일 자원적인 것이라면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칼빈 자신은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으며, 악한 일 밖에 결심할 수 없는 것은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부패에서 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를 결박한 부패의 죄사슬은

---

88) 기독교강요, p. 460.

89) 마틴 루터, 「루터의 저작선 중 노예의지론」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p. 260. 이하 노예의지론. “사람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 속에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다“

90) 기독교강요, p. 394.

91) Loc. cit.

92) 노예의지론, p.234. “하나님이 아무 것도 우발적으로 마리 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치 않고 영원하고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듯에 따라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의도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꼭 필요하고 건전하다.“

처음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를 배반한 데서 생겼건 것으로 아무도 필연성을 이유로 용서를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그 필연성이야말로 그들이 정죄를 받는 가장 명백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악마의 예로 보건데,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자원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하며, 우리의 필연성이 자원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더욱 불행한 것이라고 하였다.<sup>93)</sup>

두 번째로 그들이 덕행과 죄악이 모두 의지의 자유 선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칼빈은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므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대답하고, 의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대답한다.<sup>94)</sup> 그리고 그들이 자유의지가 공로의 원천이라는 것에 대해 어거스틴은 서슴치 않고 자유의지가 공로에 원천이 아니라고 항상 가르친다고 하였다.<sup>95)</sup> 하나님은 모든 공로보다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서 자신의 공로를 산출하려 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발견되자 않기 때문에 은사를 완전히 거저 주신다고 하였다. 칼빈은 자유의지가 성립할 수 없으면 공로도 없으리라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라고 충고한다. 그는 성경이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며 도망하는 것은 최고의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였다. 바울이 “만일 모든 것을 받았다면 무슨 까닭에 선물이 아닌 듯이 자랑하느뇨(고전4:7)한 말은 바울이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며 여러 가지이므로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듯이 그것을 상으로 주신다고 설명하여 주고 있다.<sup>96)</sup> 이러한 것에 대해 김영규교수는 인

---

93) 기독교강요, p. 461.  
94) 기독교강요, p. 462.  
95) 기독교강요, p. 463.  
96) Loc. cit.

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그저 주신 모든 은택들을 사람이 스스로 누리는 것처럼 살도록 하신 은택들의 틀이라고 하였다.<sup>97)</sup>

세 번째로 저들이 만일 선악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면, 같은 본성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모두 악하거나 모두 선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칼빈은 저들이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sup>98)</sup> 바울이 모든 사람이 부패했을 뿐 아니라 악으로 넘겨졌지만, 모든 사람이 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사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일 복종하는 능력이 죄인에게 없다면, 충고하는 것이 헛되며 경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칼빈은 어거스틴의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교훈들을 사람의 힘을 표준으로 측정하지 않고, 택하신 자들에게 실천 능력을 풍부하게 주신다고 말한 것으로 그 대답을 하고 있다.<sup>99)</sup> 이것은 교훈과 충고와 책망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하는가를 알려 주는 것인데,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3:7)한 바울의 말씀은 사람이 깨닫는 마음을 받아야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그의 교훈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sup>100)</sup>

칼빈은 이러한 교훈들을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우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요구하며,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일단 받은 사람은 그 은총 안에서 매진하

---

97) 신학과 현대과학, (제1부 과학의 인간의 궁극적 가치) p. 13.

98) 기독교강요, p. 464.

99) 기독교강요, p. 465.

100) 기독교강요, p. 466.

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오래 전에 하나님의 법규로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관습이 생겼는데 이것은 율법을 전연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였다. 율법이 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보다 훨씬 높게 두셨던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한 정의는 율법이 실현하려고 목적인 것은 사랑이라(딤후전 1:5)고 소개하였다. 칼빈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은 생활 원칙이며 우리가 그 원칙대로 노력해야 하는 것과 함께 율법의 여러 가지 효용에 대해서도 충실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다.<sup>101)</sup> 이 점에 대해 어거스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공경한다면, 교훈은 심히 유용하다. 믿음은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성취한다. 참으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명령된 것을 믿음이 성취하기를 원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 자체를 요구하시지만, 찾으시는 것을 먼저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sup>102)</sup>

## 2. 칼빈이 본 로마 카톨릭의 인간론

a. 일반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도구이다.

칼빈의 인간론의 근거는 죄인으로서 인간에 대한 지식과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틀로 되어 있다면 카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스콜라신학자들은 인도할 수 없는 자연의 빛(lumen naturae)과 허구적 예비들(fictas preparaciones)와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과 공로(merita)를 부정하지 못한 것과 대립되어

---

101) 기독교강요, p 469.

102) 기독교강요, p. 470.

있다.<sup>103)</sup> 특별히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한 사상은 인간의 공로 사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카톨릭 교회의 성례와 성례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빵과 다른 음식을 주어 먹이시고 태양으로 세상을 비추시며 열로 따뜻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런 빵과 음식, 태양, 열이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이다. 그 자체를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 은혜라는 말은 어느 인격체의 속성에게만 제한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빵이나 음식이 은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식이다. 이런 원리로부터 피조물을 우리 선의 원천이라고 선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선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당연히 피조물들은 선 자체가 아니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전의 성례물에 대해서 그 빵을 은혜 자체로 여길 수 없고 성례 자체에 신뢰를 두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성례에다 전이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성례물들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아닌 은혜를 내리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은혜를 내리시는 자는 하나님으로서 그 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다.<sup>104)</sup> 따라서 칼빈은 성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확인하고 확증해 주는데 있고,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하며, 한가지 덧붙이면, 우리의 약한 믿음을 지탱하고 강화시키며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sup>105)</sup>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성례를 거룩하고 영적인 일들의 표징이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그런 성례의 기능을 넘어서 성례에 일정의 비밀스런 능력을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06)</sup> 더구나 성례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

103) Institutio 1536, Praefatio, 11, 김영규 「교회관」에서 재인용.

104) Ioannis Calvini,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V.에 의한, 김영규,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교회관에 있어서 칼빈의 신학적 발전과 그의 미”에서 발췌. 이하 교회관.

105) Ibid., 207. 교회관에서 재인용.

106) 교회론, p. E-7.

(iustificare), 은혜를 입혀준다(conferre gratiam)고 생각하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치명적이고 유해한 생각(Quae sententia, dici non potest, quam sit exitialis perstilens)이라고 비판하였다.<sup>107)</sup>

b. 회개는 주의 자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회심에 있어서 스콜라적 퀘변론자들(scholastici sophistae)<sup>108)</sup>이라고 부른 카톨릭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회개는 마음의 통회(contritio cordis) 혹은 마음의 가책(compunctio cordis) 또는 입의 고백(confessio oris), 행위의 보속(satisfactio operis)으로 구분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연적이라고 가르쳤다고 하였다.<sup>109)</sup> 즉 그들은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통회, 고백, 보속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해, 칼빈은 죄의 용서가 그들이 붙이는 조건에 달렸다면, 오히려 그보다 더 불행하고 비통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는 문제는 무엇 때문에, 어떤 법으로, 어떤 조건하에,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양심은 평안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으며, 확신이나 안심을 얻을 수 없고 도리어 양심은 끊임없이 떨며 흔들리며 불안하며 고민하며 동요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을 보면 도망하기까지 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10)</sup> 동시에 칼빈은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첨가하였다.<sup>111)</sup> 진정한 죄인은 자기의 통회나 눈물을 문제 삼지 않고, 주의 자비만을 주시한다고 하였다. 죄인이 그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과 죄인이 자기의 불행과 죄에 포로 된 상태를 인정하고 새로운 회복과 안식과 자유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주리고 목마른 자같이 구하라고 명하는 것-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107) Ibid., IV, 210. 교회관, E-8에서 재인용.

108) Inst. V, 305. 교회관, E-4에서 재인용.

109) Ibid., V, 308.

110) 기독교강요, p. 119.

111) 기독교강요, p. 120.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였다.<sup>112)</sup> 카톨릭에서는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보조적인 방법에는 눈물과 금식과 예물과 자선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방법들로 주의 노여움을 풀며, 하나님의 의(義)에 대한 빚을 갚으며, 우리의 범행에 대한 보상을 치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sup>113)</sup> 즉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죄책을 용서하셨으나, 공의의 법에 의해서 벌을 보류하시기에, 보속에 의해서 속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14)</sup> 이 모든 말의 요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행위의 공로가 그 사이에 끼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공로로 죄의 피해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보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115)</sup> 이에 대해 칼빈은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나는 값없이 주시는 죄의 용서를 대립시킨다고 하였다.<sup>116)</sup> (사52:3; 롬3:24-25; 5:8; 골2:13-14; 딤후1:9; 딤텔3:5)

첫째로, 용서는 순수한 관용에서 주는 선물이다. 보속이란 생각을 일소하기 위해 “거저”라는 말을 붙힌 것이다. 또한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 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고 하실 때에(사43:25), 용서의 원인과 근거는 그의 선하심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밝히 선언하신다. 또한 온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행10:43) 이것은 다른 모든 이름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그리스도의 위임만 의지할 뿐이라는 뜻이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sup>117)</sup>

그들은 또 한 도피 수단으로 어떤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소

112) Loc. cit.

113) 기독교강요, p. 150.

114) 기독교강요, p.151.

115) Loc. cit.

116) 사 52:3“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117) Loc. cit.

죄), 어떤 죄는 죽을죄라는(대죄) 어리석은 구별을 한다. 대죄를 위해서는 중한 보속이 필요하고 소죄는 더 쉬운 수단으로-주기도와 거룩한 물을 뿌리는 것과 미사에서 받는 사면- 속할 수 있다고 한다.<sup>118)</sup> 그러나 칼빈은 의와 불의의 표준인 성경의 교훈에 따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롬6:23),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겔18:20)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죽을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으로(롬8:1), 죄가 인정되지 않고 용서를 받아 죄가 말소되기 때문이다(시32:1-2)라고 하였다.<sup>119)</sup>

c. 칭의는 하나님의 의에 전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카톨릭에서는 의는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칼빈은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의 의한 의는 서로 다르다고 지적한다.<sup>120)</sup> 그는 사도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3:8-9)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롬 10:3)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를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sup>121)</sup> 바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자랑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행위에 의한 의가 조금이라고 남아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자랑할 이유가 남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믿음이 모든 자랑을 없애버린다면, 행위에 의한 의를 결코 믿음에

---

118) 기독교강요, p. 155.

119) 기독교강요, p. 156.

120) 기독교강요, p. 268.

121) Loc. cit.



의한 의와 관련시킬 수 없다고 칼빈은 지적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롬4:2)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롬4:4)라고 한 말씀은 은혜로 주시는 의는 믿음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행위의 공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따라서 믿음과 행위의 두 근원에서 나와 합쳐지는 의, 이런 의를 생각해내는 사람들의 몽상과는 작별해야 한다고 칼빈은 설명해 주고 있다.<sup>122)</sup>

그러나 성경의 뜻을 곡해하는 그들은 “행위”의 뜻을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자기의 자유의지의 노력으로 율법적인 문자에 따라서만 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행위가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중생의 결실이라면, 사람은 이런 행위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명칭이 그 행위를 미화하든지간에 모든 행위를 배제한다(갈 3:11-12)고 칼빈은 사도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sup>123)</sup>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인 성화와 의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의롭다 하는 힘을 믿음에 돌릴 때에는 영적인 행위까지도 중요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아브라함이 그 행위의 의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외적인 유덕(有德) 한 모양이나 자유의지에 노력에 국한 시켜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생활이 영적이었고 천사 같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에 충분한 행위의 공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124)</sup>

그러나 카톨릭 학자들은 이런 의미를 혼합하여 하나님에게서 공로

---

122) 기독교강요, p. 269.

123) Loc. cit.

124) Ibid., p. 270.

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는 양심의 확신이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해석하여 속게 한다.<sup>125)</sup> 이것은 은혜를 성화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나, 분명한 것은 성화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성경은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해서 이들과 다르게 가르친다.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성만을 보라고 한다.<sup>126)</sup>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다른 아무 것도 찾으시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만을 보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 돌보아주실 이유를 자신 안에서 찾으신다.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를 느끼게 하셔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구원 전체의 근거를 얻도록 하신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중생하였으나 그가 받을 영원한 의는 그가 원하는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의안에 장만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127)</sup> 이런 것으로 보건데,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은 행위의 공로와는 별개로 즉 행위의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분명하다. 믿음은 복음이 말해주는 의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음이 율법과 다른 점은 의를 행위에 연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유업을 받으며, 이 일은 은혜로써 오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sup>128)</sup>

또한 카톨릭에서는 성자들의 잉여공로설을 “받아들이는 은혜” 즉 그들은 행위에 의한 의가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위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일평생 죄의 용서가 필요하나 범한 불법은 잉여 업적에 의해 보상된다고 주장한다.<sup>129)</sup> 이에 대해, 칼빈은 “받아들이는 은혜“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에 불과하고 아버지께서는 값없이 베푸시는 선으로 우리를 그리

125) Loc. cit.

126) 기독교강요, p. 271.

127) 기독교강요, p. 272.

128) 기독교강요, p. 274.

129) 기독교강요, p. 314.

스도 안에서 포용하신다고 대답한다. 칼빈은 잉여 업적이 충분한 배상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입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하면서 주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으면 행위에 의한 의를 전연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주 확인하셨으므로 보속이란 생각은 이미 철저히 분쇄되었고, 그들은 참으로 사람들의 모든 의를 한데 뭉치더라도 죄 하나를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 충고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잉여 업적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sup>130)</sup> 그러면서 칼빈은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도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알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이라고 여길 뿐이라고 한다.<sup>131)</sup>

d. 공로란 말은 성경에 없으며, 위험한 말이다.

칼빈은 카톨릭의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교리에 대하여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구원의 확신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 교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어거스틴 등 교부들도 이에 반대하였다고 지적해 주고 있다.<sup>132)</sup>

특히 칼빈은 공로란 말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여, 공로란 말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말에 큰 화근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 준 해독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며, 사람들에게 패악한 자만심을 불어넣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칼빈은 어거스틴이 아담으로 인해서 없어진 인간의 공로는 여기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배하게 하라고 하며, 성도들은 자기의 공로에는 아무것도 돌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

130) 기독교강요, p. 316.

131) 기독교강요, p. 323.

132) 기독교강요, p. 326.

하였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두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는 자기에게 있는 칭찬할 만한 것도 모두 자기의 공로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을 인용하였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함으로써, 공로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공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알기만 하면 그것이 충분한 공로가 된다고 보았다고<sup>133)</sup> 칼빈은 전하고 있다. 성경에는 우리가 명령받은 일을 모두 행한 후에도,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라는 명령이 있다(눅17:10)고 함께 전한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각종의 “도덕적”인 선행을 발견해서 그것을 행하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그의 공로로 우리를 위해 최초의 은혜를 얻어주셨다. 즉 공로를 세울 기회를 얻어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할 일이라고 한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유익은 각 개인이 자력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주신 것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sup>134)</sup> 이에 대해 칼빈은 성경 구절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일5:12)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6:40)는 이 구절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를 얻는 능력과 구원을 얻는 능력 뿐만 아니라 의와 구원 둘 다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후사와 의에 참여자와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로를 세울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부 옮겨 받는다는 것이다.<sup>13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 선행은 자유의지의 능력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모든 공로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sup>136)</sup> 칼빈은 사도도 그리스도인들에게

---

133) 기독교강요, p. 328.

134) 기독교강요, p. 333.

135) 기독교강요, p. 334.

136) Loc. cit.

모든 자량을 금한 다음에, 자량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한다고 소개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라고 한 말씀은 우리가 중생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서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없으며, 우리의 중생은 전적으로 일점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행했노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연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37)</sup>

e. 보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칼빈은 보상에서 행위의 의를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못 박는다. 왜냐하면 보상을 말하는 귀절들이 행위를 구원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38)</sup>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마16:27)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롬2:6)하신 말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이 표현은 원인보다는 일의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만 자신의 생명 안에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는 정하신 순서에 따라 그들 안에서 자신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선행의 경주를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행위에 따라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신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요6:27) 명령이 있고, 곧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는 말씀이 첨가되므로 여기서 일한다는 말은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의 장본인이라든지, 구원은 그들의 행위에서 유래한다든지 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자들이 복

---

137) 기독교강요, p.335.

138) 기독교강요, p. 369.

음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주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다.<sup>139)</sup> 그러므로 보상이란 말이 사용되더라도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천국은 종이 받는 값이 아니라 자녀들이 받는 기업이라고 하였고, (엡1:18) 또한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 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갈4:30 성령께서 영원한 영광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하시는 구절에서도 그것은 명백하게 기업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그것이 다른 원천에서 온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상은 기업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행위를 열거하시고 그것을 실행한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시며, 하늘을 차지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이다.(마25:35-37)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상속권에 의해서 차지해야 한다고 첨부하신다.(마25:34) 그 보상을 유업의 상이라고 한다.(골 3:24) 이런 구절들에 의해서 규정된 용어으로써 영원한 복락을 행위의 결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데 돌려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임 알 수 있다고 한다.<sup>140)</sup>

이것은 신자들의 어떤 행위가 고려되기 전에 주께서 주신 약속에 의한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 자비 이외에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을 때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다. 행위가 있기 전에 값없이 주신 것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하신 것들을 주실 것 혹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명상하고, 우리에게 제시된 복된 소망을 하늘에서 얻으려고 행위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주께서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의 열매가 성숙하는 데까지 우리를 데려가 우리의 행위에 그 결실의 공을 돌리는 것이다.<sup>141)</sup>

---

139) 기독교강요, p. 370.

140) 기독교강요, p. 371.

## B.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인간론

### 1. 칼빈의 인간론의 특징

#### a. 칼빈의 인간론은 철저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근거로 한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다. 즉 인간이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의 대한 것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sup>142)</sup> 그는 인간의 자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여러 가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쪽이 선행하고 다른 한 쪽이 어느 쪽으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쉽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지식에는 정당한 순서가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들의 지식이 상호 서로 관련되어 있더라도, 먼저 전자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내려가 후자를 논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한다<sup>143)</sup>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칼빈은 이는 맨 먼저 그 안에 살고 기동하고 있는 바 그 하나님에게 그의 지각의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자

---

141) 기독교강요, p. 372.

142) 김영규, 「기독교강요 강독 I」 p. 32. 이후 기독교강요강독. “칼빈이 말하는 자아에 대한 지식은 개혁주의 교의학에서 인간론으로 교리화 되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 타락된 본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자신을 알라는 것은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도 아니요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자아의 상태로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자아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아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아이다.”

143) “Utcunque tamen Dei notitia mutuo inter se nextu sint colligatae, ordo recte docendi postulat ut de illa priore disseramus loco, tum ad hanc tractandam postea descendamus.”

(이하 라틴어는 김영규 교수의 「기독교강요강독」에서 재인용함).

신을 결코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고,<sup>144)</sup> 또한 참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안에 현존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sup>145)</sup>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물방울처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지는 선한 것들로부터 마치 개천으로부터 물의 근원지로 되돌아가듯이 원천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이 샘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 부분이 1536년 판에서는 쓰빙글리 사상처럼, 칼빈은 하나님을 최고선(summum bonum)으로 소개하는 부분이다.<sup>146)</sup> 하나님의 은총과 조명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순서에 의해 본 인간의 모습은 죄인 된 자아의 모습으로 이러한 죄인된 모습을 통해 인간은 아주 경건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즉 “실로 우리의 빈곤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무한한 선이 있음이 더 분명해 지고 있다. 특별히 최초 인간의 실수로 빠지게 된 그 비참한 파멸은 위를 바라보게 한다. 이는 거기에서 굶주리고 배고픈 자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갈구 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자로서 겸손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마지막으로 타락과 부패의 지각으로부터 오직 하나님 안에 지혜의 참된 빛과 건전한 덕, 완전하고 차고 넘치는 선들, 의의 순결함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sup>147)</sup>”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도록 우리는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다.

칼빈은 우리들이 자신들의 비참상과 빈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져온 처방의 가치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 충분한 애정으로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

144)“Nam primo, se nemo aspicere potest quin ad Dei in quo vivit et movetur, intuitum sensus suos protinus convertat”

145)“imo ne id quidem ipsum quod sumus, aliud esse quam in uno Deo subsistentiam”

146)기독교강요강독, p.30.

147)“Ita ex ignorantiae, vanitatis, inopiae, infirmitatis, pravitatis denique et corruptionis propriae susnsu recognoscimus, non alibi quam in Domino sitam esse veram sapientiae lucem, solidam vitutem, bonorum omnium perfectam affluentiam, iustitiae puritatem.”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들의 비참함을 의식하게 되어야 비로소 열심히 달려가 그 처방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평가하지 않는다<sup>148)</sup>고 하였다. 이처럼 칼빈의 인간론은 신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별히 그가 인간의 대한 지식을 다룰 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어떤 인간의 지식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인데,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이 인간의 지식에 관해 말할 때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참된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사상은 그의 기독교강요 1536년도 판에서 제 I 권에 율법을 다룰 때, ‘a. 하나님에 대한 지식, b. 인간에 대한 지식, c. 율법, d.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e. 십계명 강해’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이처럼 초판에서부터 그에게는 인간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sup>149)</sup> 칼빈의 인간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 출발하는 성격은 당시 로마교회의 우상숭배적인 무지한 맹신을 반대하는 개혁신앙의 독특한 내용이었다. 칼빈은 그의 시편주석<sup>150)</sup>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칼빈은 영적인 지각이 둔한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자마자 근거 없는 미혹에 빠져 각기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잡다한 발

148) 칼빈, 「이사야IV 주석」, 성경주석 출판위원회역, (성서교재간행사, 1990), p.125.

149) 김영규 교수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자아의 지식에 대한 논의에 대한 1536년도 판과 1559년도 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논의 순서는 이미 1536년에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루기 전에 취급된 방식이다. 비록 하나님의 지식 없이 자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다는 사상이 1559년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순서가 그 본래적인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1559년 판에서 하나님의 지시기에 대해서 따로 다루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책의 모든 근거로서 자리를 잡았어도 위의 1536년의 의도는 각 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536년 판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던 실천적 의미가 후에 그런 조직화 때문에 외적으로 감추어졌다는 느낌을 얻고 있다. 기독교강요강독, p.33.

150) 시편97:7;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궁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라”

명품에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골라 섬기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 낸 헛된 것들 안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태양이 어두움을 물리치듯이 그들의 우매함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그들 안에 종교에 관한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뿐 아니라 우매하고 둔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각이 부패해 버린다. 종교는 이와 같이 모든 우상숭배의 시초가 된다. 그러나 본질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어두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마음의 어두움이 그들로 우상들과 참 하나님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상숭배를 제거할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사람들의 눈에 숨겨졌으므로 우리는 세계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엄청난 우상숭배에 대해서 놀랄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역시 깨닫게 된다. 참 교리에 대한 지식은 회교도와 유대교도와 교황주의자들 사이에 구분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sup>151)</sup> 칼빈의 이러한 사상을 통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자극할 뿐만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각성시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b.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목적은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의 목적을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자극할 뿐만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각성시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52)</sup> 칼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온 세계가 그로부터 기대하고 구하며 더구나 받은 것들을 그에게 돌리기를 우리가

151)칼빈, 「시편IV주석」, p.169.

152) 기독교강요강독, p. 33.

배우도록 하기 위함<sup>153)</sup>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핵심 사상인 것으로 그의 로마서 주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sup>154)</sup> 그는 경건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들의 원천이라고 확신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찾아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지 않고 단순히 그가 모든 이들로부터 예배되고 경배되어야 할 유일한 분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 그를 경외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들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기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sup>155)</sup>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인식은 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무지함으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칼빈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돌려 드리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 과연 돌려 드리는 방식이란 무엇일까? 이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의 삶의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 해결의 차원을 넘어 주께 돌려드리는 정신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칼빈이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목적이 인간에 관한 지식과 함께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 한 마디로 ‘우상을 만들어 내는 영원한 공장’<sup>156)</sup>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우상숭배의 기원은 인간의 어리석음, 무지, 교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부

---

153) qua non modo unum esse Deum ostendat, quam ab omnibus oporteat coli et adorari Ut ab ipso et expectare et petere universa ista discamus, praeterea cum laude et gratiarum actione accepta illi referre, “Institutio 1539, Cap. I.

154) 기독교강요 강독 I, p.34.

155) Ibid., p. 33.

156) 기독교강요, p.183.

족하지 않는데도, 인간은 자신의 길 즉 치명적 오류들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157)</sup> 당시 교황주의자들이라고 일컫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은 이러한 무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형상물을 가리켜 '무지의 책'<sup>158)</sup>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자의 화상, 혹은 조상(彫像)과 동정녀의 조상을 만들어서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하다고 변명하였다. 칼빈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해 하나님은 그러한 쓰레기 같은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교리를 배우기를 원하신다<sup>159)</sup>고 했으며, 그들이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을 교육하기에 적합했던 그 교리를 탈취 당한데서 온 것이라고 근본 원인을 지적해 주고 있다. 실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임무를 우상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병어리였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sup>160)</sup>고 그 원인을 교회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돌리고 있다. 한 가지 참된 교리만으로도 나무와 돌로 만든 천 개의 십자가상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칼빈의 지적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만을 자극시키거나, 인간의 의지만을 신앙의 요소의 모든 것 인양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리라고 본다.<sup>161)</sup> 그리고 칼빈

---

157) 기독교강요, 기독교강요 강독, p.54-55. 재인용. “가장 탁월한 자도 어둠 가운데 오류에 빠져 있다면, 찌기 같은 자들의 경우야,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로 고안해 낸 모든 의식이 타락된 것이라고 성령이 거절하였다고 조금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는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파악된 경해가 비록 항상 막대한 오류의 무더기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또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비록 나쁜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증거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데도 자신을 인식하도록 많고 여러 가지 인자하심으로 인간을 친절하게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vias.. suas), 즉 치명적인 오류들(exitiales errores)에 따르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있어서 도시의 관습이나 고대의 합의를 따르는 경건의 띠가 아주 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 하는 일이 남아 있다.”

158) 기독교강요, p.181.

159) Loc. cit.

160) Loc. cit.

은 인간의 복된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데 있다고 하였고 역시 참된 신앙은 무지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다고 확신하였다.<sup>162)</sup> 이것은 칼빈의 카톨릭주의의 맹목적인 신앙이나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개혁적 입장이었다. 칼빈의 정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었다. 이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에 관련하여 확고한 확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믿음의 지식은 파악과 결합되어 있기보다는 확신과 결합되어 있다<sup>163)</sup>고 보았던 것이다. 즉 칼빈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되어 있다. 이 두려움은 그 안에 역시 자발적인 경애를 포함하고 스스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합법적인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에 대한 지식과 자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기독교의 진리가 시작하는 내용을 칼빈은 후에 수정하여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출발하여 더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이 되게 하였다.<sup>164)</sup> 계시가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위해서 가장 기초되는 개념이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넓으면서 애매한 계시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였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긴다. 보수적 개혁주의에서는 특별한 계시관념이 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명성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자기계시'란 개념의 발견이다: *Deus se nobis patefecit.*<sup>165)</sup> 1536년판의 자아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자리는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서론이다. 거기에서 자아와 관련하여 다루는 내용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이해되었다. 그 형상이 지혜와 의와 거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신적인 은혜의 선물들을 타락으로 잃어 버렸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그리하

161) 윤석주, 「칼빈의 인간론」, p.69.

162) *ultimum beatae vitae finem in sui cognitione repositum esse voluit Dominus, Ioan 17, 3, Institutio 1539, Cap. I.*

163) 기독교강요강독 p.35.

164) 기독교강요강독, p.36.

165) *Loc. cit.*

여 인간에게 남아 있는 것은 죄와 두려움들인 무지와 불의, 무능, 죽음과 정죄 뿐이었다. 즉 지옥자체였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과의 교통없이 부패되어 선을 행하기에 전적 무능한 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다. 결국 인간에게는 그 스스로 의, 덕, 생명과 구원을 추구할 근거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더구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법을 새겨 두시어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게 하셨다는 내용을 칼빈은 서술하고 있다.<sup>166)</sup> 칼빈은 1536년 판에서 자아에 대해서 다루었던 내용이 그 후 성경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자아에 관한 지식을 다루었고, 창조에 대해서 다룰 때 자아에 관한 지식을 다루었으며, 구원론을 다루기 위해서 다시 자아에 관한 지식을 다루고 있다. 이런 문맥에 있어서 특별히 율법에 대한 해석이 기독교론 즉 구원론 안에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가 자아에 관한 지식을 말하였던 것이 인간론에 대한 것임이 틀림없다.<sup>167)</sup>

c.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영혼 안에 생득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에게 본능으로 있는 것이라 한다.<sup>168)</sup>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주셨고 그리고 이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신선한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생활을 바쳐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증거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깊은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

166) Loc. cit.

167) 기독교강요강독, p.37.

168)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p.9 이하 하나님의 큰일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그의 신적 기원과 신적 유사관계를 지워버리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민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고, 이러한 공통적 관념은 인류의 정신을 깊이 점령하고 있다.<sup>169)</sup>라고 부연한다.

이러한 증거는 사람에게 있는 종교의 씨앗으로<sup>170)</sup> 즉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신(神)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기에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때 불안정하며 허망하여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인간의 생득적 지식의 의미를 인간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핑계를 못하는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실제적인 불신앙은 불가능하다고 한다.<sup>171)</sup>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72)</sup> 그래서 삶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짐승과도 결코 다르지 않은 자일지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가 영원히 남아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상숭배도 이 관념에 대한 풍부한 증거라고 하였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영혼 속으로부터 지워질 수 없는 신적인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인상임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하면 할수록 변명할 수 없는 풍부한 증거를 쌓아 놓는 것이라는 우상숭배에 대한 칼빈의 특별한 인식을 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종교의 명목 하에 교활하게 소박한 자들을 속인 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전혀 갖지 못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sup>173)</sup> 종교란 인간의 인위적인 고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증거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실제적인 불신앙은 가능하지 않

---

169) 기독교강요장독, p. 37.

170) 기독교강요, p. 89 에서 "Divinitatis sensum." 와 "종교의 씨앗"은 주로 하나님에 관하 성스러운 지각을 뜻하며,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반응인 양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71) 기독교강요장독, p. 38.

172) nequis ad ignorantiae praetextum cofugeret,...

173) 기독교강요, p. 91. Ac ne illos quidem ipsos qui religionis titulo callide rudiioribus imponebant, Dei notitia prorsus vacasse credibile est)"

다고 하였다. 인간의 영혼들 속에 신적 지각이 새겨져 있고, 참으로 나면서부터 어떤 신이 있다는 이런 확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으며 이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내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였다.<sup>174)</sup> 이것은 칼빈의 일반계시의 충분성에 대한 사상을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처음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자신에게 선생이 있으며 그 중 어떤 것도 망각될 수 없고 본성 자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종교는 배우는 것이 아니며, 종교는 가르칠 필요가 없이 인간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sup>175)</sup>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독특함은 이런 종교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종교심이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변질되어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인간의 무지와 사악에 의해 질식되거나 부패되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sup>176)</sup> 신적인 종교의 씨앗이 모든 사람들 안에 심어져 있다는 사실이 경험에 의해서 증거 되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받은 것을 소중히 키우는 사람은 백중에 하나 꼴이라고 칼빈은 말한다.<sup>177)</sup> 오히려 그 안에서 무르익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때가 되어 열매를 나타내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세상에 바른 경건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결과로 보았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에 빠졌다고 해서 그들의 죄책이 면하여 지는 것이 아닌데, 이는 그것으로 수고하는 그 맹목에는 항상 교만한 허영과 완고함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78)</sup> 칼빈은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을 내디디든지 간에 그들은 필경 파멸을 향해 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원인이 공허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욕심에서 그들에게 적당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자 함에 있다고 하였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한 방향

174) 기독교강요강독, Ibid., p. 38.

175) Loc., cit.

176) 기독교강요강독, p. 39.

177) 기독교강요, p. 95.

178) Loc., cit.



성 때문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79)</sup> 그러면서 칼빈은 그러한 치명적 오류의 양상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를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그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들은 자연의 빛을 질식시키고의적으로(consulto) 자신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자들이며, 그들은 오만과 습성에 의해서 죄에 무감각하게 된 후, 자연의 지각으로부터 내적으로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제시된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기억을 미친 듯이 쫓아 버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그의 본질을 제거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심판과 섭리를 박탈시키는 자들로 하나님을 조용히 하늘에 가두어 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다.<sup>180)</sup> 또한 세계의 통치를 포기하고 운명에 맡기며 인간의 범죄를 묵과하고 형벌 없이 내버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부합하지 않는 일은 없는데, 하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에게 탐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이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죽고 허망한 우상을 만듬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짓을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sup>181)</sup> 이러한 칼빈의 무신론자들의 대한 내용을 통해 현대 교회에 적용하여 보면, 성경의 공적인 내용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신학적인 내용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형벌은 없다고 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등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을 규명해 주고 있음을 본다. 이 항목에 대해 더 살펴본다면, 퓨리탄 설교자인 Richard Steele의 은밀한 무신론(Secret Atheism)의 3가지 종류를 소개할 수 있다.<sup>182)</sup>

그것은 머리의 무신론, 마음의 무신론, 삶의 무신론을 말한다. 이 3가지 무신론은 겉으로는 무신론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무신론으로 판단하기에 애매한 무신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칼빈도 이런 차원에서 무신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sup>183)</sup>

---

179) 기독교강요강독, p. 40.

180) 기독교강요강독, p.41.

181) Loc., cit.

182) Loc., cit.

183) 기독교강요강독 I, p.42.

다음은 미신에 대한 칼빈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하나님 이 보여주는 대로 그 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미신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곤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investiganda Dei) 하나님 자신을 육적인 어리석은 방식으로(carnalis sui stuporis modo) 판단하며, 그들이 스스로 알도록 보여주신 대로(qualem se cognoscendum exhibet)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박함에 따라 만들어지는 대로(qualem prosua temeritate fabricati sunt) 상상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오히려 인간마음의 허구(figmentum)와 망상(somnium)에 예배드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84)</sup> 미신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대상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 다라고 한다. 따라서 그의 미신에 대한 중심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이는 올바르지 않을지라도 어떤 종교적 열심(studium quaecunque religionis)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하나님의 뜻이나 영원한 규범에 일치해야 하고(veram religionem ad Dei nutum, ceu ad perpetuam regulam, debere conformari) 하나님 자신은 참으로 자신과 유사하게 남아 계시며(Deum vero ipsum semper sui similem manere) 어떤 사람의 기호에 따라 변질되는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85)</sup> 즉 진리에 대한 추구 없이 정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태도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법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앙의 구성에 있어서 의지와 감정(assensus)의 강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하고 있다.

칼빈은 특별히 카톨릭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혼미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들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하고 거짓된 견해를 가진 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 하나님 없이 지낸 자들, 유일하시고 참

---

184) 기독교강요강독, p. 42.

185) Loc., cit.

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일에 있어서 외인들이라고 책망하였다<sup>186)</sup>고 한다.

세 번째로는 죄가 되는 위선에 대해서 칼빈은 미신과 함께 위선도 죄가 된다고 하였다. 그는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체위장함으로 죄 속에 잘 안주하고 있는, 스스로 들떠 만족하며, 또한 성령의 고삐로 제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육체적인 방종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sup>187)</sup> 그러면서 위선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과 뜻은 분명한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남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버려두는 자, 방종 하는 자는 위선자라고 하였다. 강요받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며 반항하는 자로서 끌려가기 전에는 그에게 접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적인 위엄에 대한 경애로부터 흘러나오는 두려움에 젖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자들의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강요하는 노예성과 강제성에 젖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할 수도 없는 능력이 가해짐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을 멀리할 수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서워 뒤로 물러나며,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나 그들을 위압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떨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어떤 종류의 종교적 모양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선자들은 이러한 굵은 길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들이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나 그 뿌리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쁜 열매들만을 맺는다고 하였다. 이들은 절망이 그들을 엄습하면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찾게 되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없고 더 일찍이 일어났어야 할 것이 완고함으로 억제되었음이 분명해 지고 있다<sup>188)</sup>고 하였다. 칼빈은 유기자의 특징은 노예성과 강제성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위선자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관

---

186) 기독교강요강독, p. 43.

187) 기독교강요강독, p. 44.

188) Loc., cit.

계없이 탐구자체를 기호로 삼는 즉 호기심과 지적인 추구에 의한 성경연구도 위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최종적인 것은 열매가 있고 없는가에 따라 판단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d. 하나님의 지식은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빛난다.

칼빈은 하나님의 자기계시는 피조물 안에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는 이 세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빛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다<sup>189)</sup>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강조하지만 칼빈은 아무도 무지를 구실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증거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하늘과 땅에 있고 가장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도 보지 않을 수 없게 계시되어, 눈을 뜨기만 하면 자신들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목격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들의 눈의 도움으로만 가르침을 받은 군중들과 무지한 자들도 하나님의 기술의 탁월함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없고, 주께서 자신의 지혜를 그들에게 풍부하게 계시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sup>190)</sup>고 하였다. 특별히 신적인 지혜의 가장 높은 증거는 인간이라고 한다.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의 희귀한 표본이<sup>191)</sup>라고 하였고, 인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거울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른 웅변가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그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충분한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시8:2) 또 인간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들로 유명한 작업장이요 측량할 수 없는 역사로 넘쳐 가득 채워진 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닫고 있고 각종 은사들은

---

189) 기독교강요강독, p. 45. "nulla est mundi particula in qua non scintillae saltem aliquae gloriae ipsius emicare cernantur"

190) 기독교강요강독, p 46. "constat neminem esse cui non abunde sapientiam suam Dominus patefaciat"

191) "rarum... potentiae, bonitatis et sapientiae Dei specimen"

하나님의 관대하심에서 왔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들이 신성의 표시임을 그들은 알게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배은망득의 무서운 죄를 범한다고 인간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sup>192)</sup> 칼빈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광란을 부린다고 하였다. 즉 이들의 양상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돈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93)</sup> 그러나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찬양하고 사랑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광채 나는 증거들로 우리들을 환기시키는 능력, 그 능력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원성을 생각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는 영원하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그 근원을 갖는 그 자체로부터 원리를 가져야 함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이끌기에 족하다고 하였다.<sup>194)</sup>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지식이 그의 섭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즉 인간사회의 경영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방식에서 자비와 은택을 모든 이들에게 그가 베푸시는 대로 그렇게 그의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고 일상적인 선언들을 통하여 경건한 자들에게 관대하심을 악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엄격하심을 선언하신다고 하면서 섭리적 시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말하고 있다.<sup>195)</sup> 또한 섭리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 하심에 대해 그는 분명히 (non obscure) 자신이 무죄자의 보호자요 변호자이심을 증명하신 대로, 선한 사람들의 생을 그의 은택으로(sua benedictione) 번창하게 하시며 궁핍함을 도우시며 고통들을 덜어 주시며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배려하시

---

192) 기독교강요강독, p. 47.

193) Loc., cit.

194) 기독교강요강독, p. 48.

195) 기독교강요강독, p. 49.

고, (saluti per omnia consulit) 또한 하나님께서 갑자기(repente) 그리고 기적적으로(mirabiliter) 예상밖에(praeter spem) 비참한 자들과 거의 멸망에 가까운 자들을 절망의 것들로부터 구해내시므로 자신의 섭리와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신다고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공허한 사색에 만족하여 단순히 뇌리에 맴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초대하려는 것이라 한다.<sup>196)</sup> 하지만 칼빈은 이런 창조와 섭리와 경륜은 서곡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정체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처럼 주님이 그의 역사의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명백한 증거들이 되기에 항상 우리가 마비되어 있어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칼빈은 그러므로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sup>197)</sup> 이는 온 세상이 무한한 오류와 무지, 방종, 혼동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온 땅을 채우고 뒤덮은 그 무한한 오류의 진창(*immensa illa errorum colluvies*)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각자의 재능은 미궁과 같아서(*instar labyrinthi*), 각 민족들이 여러 가지 날조로 나누어져 갔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자신의 신들을 소유하고 경술함과 천박함이 무지와 흑암으로 더불어 결합되어 하나님 대신(*Dei loco*) 자신을 위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풍부한 샘에서 물이 분출되어 나오는 것처럼 막대한 신군이 인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각 자가 극단적인 방종으로 흘러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고안해 냈던 것이다.<sup>198)</sup> 사람들이 본성으로만 가르침을 받는다면, 확실하거나 견고한 혹은 명료한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다만 혼란한 원리들에 사로잡혀,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게 됨이 여기에서 분명히

---

196) 기독교강요강독, p.51.

197) 기독교강요강독, p.52.

198) 기독교강요강독, p.53.

하고 있다<sup>199)</sup> 이것은 일반계시의 비명료성을 칼빈이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인간에 의해 고안된 모든 의식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칼빈은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로 고안해 낸 모든 의식이 타락된 것이라고 성령이 거절하였다고 조금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는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파악된 견해가 비록 항상 막대한 오류의 무더기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류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00)</sup>

그러므로 자연의 기적적인 구조로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지식의 씨를 인간이 즉시 부패케 하여(*mox corrumpunt*), 선하고 순수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잘못으로 전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피조물로부터 찬란하게 보여 주는 그 단순한 증거만으로(*nuda ista et simplici testificatione*)는 우리가 결코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도 참된 사실이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상을 통하여 어떤 가벼운 신지식을 맛보게 되자,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대신 우리 뇌리의 꿈과 환상들을 우리가 세우고 의와 지혜, 선과 권능에 대한 찬양을 그 근원으로부터 이런 저런 것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매일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애매하게 하거나 악하게 판단하여 바꾸거나 하여 그로부터 그의 영광과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을 빼앗고 있다고 한다.<sup>201)</sup>

e.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방법으로서의 일반계시인 창조와 섭리는 비명료함으로 우리가 충분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기 위해 특별계시라 부르는 성경의 필요성을

---

199) "hinc tamen apparet, si naturaliter tantum edocti sint homines, nihil certum, vel distinctum tenere: sed confusis tantum principiis esse affixos, ut Deum incognitum adorent"

200) 기독교강요, p. 123.

201) 기독교강요강독, p.56.

깨닫게 되었는데,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는 인도자와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확실한 징표로서의 특별한 선물이 되는 성경에 대하여 우리를 세계의 창조자 자신에게로 바르게(probe) 인도할 다른 더 좋은 조력자가 필연적으로 더해져야 한다. 성경으로부터 구원이 알려지도록 하는 그의 말씀의 빛을 더해졌다(verbi sui lumen addidit)고 한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혼란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처럼, 어둡고 우둔함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특별한 선물(singulare donum)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non mutis duntaxat magistris Deus utitur), 지극히 거룩한 입을 여신 것이라고 하였다.<sup>202)</sup> 또한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인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는 것으로서 이것은 택한 자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분으로 경배해야 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ab initio) 그의 교회를 이런 질서로 세우고 일반적인 증거 외에 말씀을 첨가하심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바르고 확실한 징표들이라<sup>203)</sup>고 진술한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의 조성자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칼빈은 진술한 것이다. 김영규 교수는 위와 같은 칼빈의 특별계시의 방법을 근거로 ‘의심할 나위도 없이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그 밖에 족장들이 이런 조력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크게 구별된 친밀한 지식에(ad familiarem notitiam) 도달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였다고 한다.<sup>204)</sup> 이러한 확고하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써 칼빈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말

---

202) 기독교강요강독, p. 57.

203) "ut praeter communia illa documenta verbum quodue adhiberet"  
"rectior est et certior ad ipsum dignoscendum nota"

204) 기독교강요강독, p.58.



씬과 환상을 통하여 알리셨든 혹은 사람들의 역사와 사역을 통하여 후에 후손들의 손에 의해서 전승하게 될 것을 제시하셨든 혹은 선행자들에게 계시된 것이 후손들의 손에 의해서처럼 그들의 사역에 의해서 전승되어 왔든 의심할 것 없이 그들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하고 이해하는 그 가르침의 확고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고 하였다.<sup>205)</sup>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견해보다 승한 의심치 않는 신앙을 그의 말씀으로 형성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성경의 기록과 관련하여서는 마침내 계속된 역사과정에서도 가르친 진리가 모든 세대를 통하여 계속 세상에 남아 있도록, 족장들에게 분배하셨던 동일한 말씀들을 공적인 기록과 같이 기재하시고자 하셨다고 한다. 이런 뜻에서 율법이 선포되었고 후에 선지자들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나는 일반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지라도 특별히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참된 종교가 우리에게 빛나도록, 하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성경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외에는 바르고 건전한 교리에 대한 어떤 맛도 맛볼 수 없음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경건하게 받아들일 때야 그로부터 참된 이해의 원리가 생긴다고 그는 고백한다.<sup>206)</sup> 이것은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칼빈은 망각으로 파멸되지 아니하고 오류로 사라지지 않으며 인간의 방자함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천상의 교리의 기록이 필연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 속에 새겨진 자신의 모사 (effigiem)가 거의 유익하지 않을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언젠든지 열매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자들에게 말씀의 도움 (subsidium verbi)을 더하셨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칼빈은 사역들 자체는 우리의 부패된 판단으로부터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규범에

---

205) Loc., cit.

206) 기독교강요강독, p. 59.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역들에 대해서 바르고 생생하게 묘사하신 그의 말씀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sup>207)</sup> 그는 또한 이는 우리가 만일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해낼지라도, 그 길 밖으로 달리기 때문에, 결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 말씀의 선 자체 안에 우리가 방향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미궁과 같음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08)</sup> 이러한 것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타락이라고 한 말과 상통한다. 이러한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칼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할 때만 정당하게 신자들에게 완전한 권위를 얻는다고 하므로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듯 성경의 권위가 교회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209)</sup> 그는 어떤 증거로 성경이 확증되어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서 물론 성령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대답한다. 이것은 그의 권위가 확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이라고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 신앙이 교회의 판단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불경건한 속임이라고 못박아 말한다. 마치 영원하고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의해 빛나게 되는 것처럼, 교회의 판단들에 의해 승인되는 한, 그렇게 큰 가치가 성경에 있다는 것에 가장 유해한 오류이며, 성령의 큰 조롱이라고 하였다.<sup>210)</sup>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자체가 성경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교회가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선포에 기초되었었다면, 그 교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더라도 그것의 수납이 교회보다 확실히 선행한다고 설명한다.<sup>211)</sup> 칼빈은 또한 성경은 성경 자체로부터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성경자체의 가신성을 설명하고 있다.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견고히 성경에 안식하고 확실히 성경은 자체 가신적이어서 증명이나 이성애 종속시키는 것이

---

207) 기독교강요강독, p. 60.

208) Loc., cit.

209) 기독교강요강독, p.61.

210) 기독교강요강독, p. 62.

211) Loc. cit.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12)</sup>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승한 것에 대해 칼빈은 이 확실성이 어떤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하지 않다면, 성경의 권위가 논증들에 의해서 (argumentis) 수축되든, 교회의 합의에 의해서(Ecclesiae consensu) 확립되든, 혹은 다른 지원들에 의해서(alii praesidiis) 확증되든 헛될 것인데, 이는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의심이 항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진리가 외부적 지원들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고, 오직 그 자체가 자증하기 충분한 곳에서 전혀 의심 없이 옹호된다. 그러므로 율법의 전수도 신뢰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전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보다 더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보존되었다<sup>213)</sup>고 한다. 그리고 덧붙혀 설명하기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확실히 그들의 책들은 후손들에게 손과 손을 통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말씀하였던 대로, 부분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듣거나 부분적으로 듣는 자들로부터 기억으로 수급하여 가르침을 받아 여러 해 동안 계속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그렇게 말하여 진 것들이다.<sup>214)</sup>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는 성경을 무시한 신비주의가 경건의 원리를 전복시키는 것에 대해 칼빈은 왜 더 이상 계시가 있을 수 없는지에 대한 원리인 성령은 성경 안에서 자신과 비교되고, 자신 안에 고려되며, 일단 알려진 그대로 영원히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사탄의 영이 자신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그는 형상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의해서 인식되기를 바라신다고 하고, 그가 성경의 저자이시며 그는 변할 수도 자신과 다를 수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자신을 그 안에 일단 한 번 알리신 그대로 영원히 머무실 것<sup>215)</sup>이라고 하였다. 말씀과 영이 분리할 수

---

212) 기독교강요강독, p.64. “quos Spiritus sanctus intus docuit, solide acquiescere in Scriptura, et hanc quidem esse, neque demonstrationi et rationibus subiici eam fas esse”

213) 기독교강요강독, p. 70. “Fuit Lex Mosis caelesti magis providentia, quam hominum studio mirabiliter conservata”

214) Loc., cit.

215) 기독교강요강독, p. 74. “varius dissimilisque esse non potest.

없이 함께 속해 있는 것에 대하여 성령은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렇게 자신의 진리에 고집하시므로 그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위엄이 있는 곳에서는 마지막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지 않고는 아주 확실하지 않는 것처럼, 이는 어떤 상호관계로 주께서 말씀과 그의 영의 확실성을 서로 결합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216)</sup>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성경이 다른 모든 우상숭배를 배척한다는 사실이다. 실로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만이 어느 곳에서나 알려지고 경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허망함에 끌려가거나 거짓된 허구에 빠져들어 인간의 지각이 소실되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천성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변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신론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규명해야 진정한 자아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가 약속하신 그러한 은총을 누리며, 그가 원하시는 그 가치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f.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 선행의 근원이 은총임을 가르친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의 전 신학적 체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sup>217)</sup> 칼빈의 기독교강요 마지막판인 1559년 판에서 칼빈은 참된 신앙의 구성요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notitia)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도신경이 기독교강요 전체 내용의 저변을 이루면서, 우리가 믿는다(credimus), 나는 믿는다(credo)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시대를 비판하는 중요한 단면을 보

---

Qualem igitur se illic semel prodidit, talis perpetuo maneat oportet”

216) Loc., cit. “Mutuo enim quodam nexu Dominus verbi Spiritusque sui certitudinem inter se copulavit”

217) 교회관, p. E-5.

여주고 있다.<sup>218)</sup> 이 판의 신학적인 특성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상이다. 그런데 1536년 판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내용이 서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무한한 지혜와 의, 선과 공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상이다. 두 번째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만물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상이다. 세 번째는 그 자신이 의의 심판자로서 그의 규례에서 벗어나서 그의 뜻을 어기며, 그의 영광을 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상이다. 이 후자의 정신은 적정과 절도의 규범(ex scripturis et cogitandi et loquendi regula, Institutio 1536, II, 73)에서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넷째는 그러나 그분이 그의 공휼에 피난처로 삼고 있는 곤비한 자들(miseros)과 가난한 자들(pauperculos)을 위한 자비롭고 온유한 자이시라는 사상이다.<sup>219)</sup>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할 때 기독교강요 초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칼빈의 사상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의 전 신학적 체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쉽게 관찰하게 된다. 특별히 그에게 처음 가장 뚜렷한 사상은 인간의 공로사상에 대한 강한 비판이다. 즉 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털끝만치라도 행위에 공로를 돌린다면 그는 성경 전체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요 공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자라고 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주님의 의라 불리어지는 것으로서, 그것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로 이미 의롭다 하신 자기 백성을 연단하여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sup>220)</sup> 또한 칼빈은 성경에는 자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 표현은 우리 행위가 그런 보상의 원인이 된다<sup>221)</sup>는 말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선행이 그런 상급을 가져다주는 공로가

218) 기독교강요강독, p. 25.

219) 기독교강요강독, p. 26.

220) Calvinus,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Institutio 1536), Basiliae 1536, I, 100-101. 교회관, p. E-6 재인용.

221) opera a nostra huius retributionis causam esse

되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의 가치를 성령이 인정하려 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sup>222)</sup> 또 보상의 소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이 올바르게 사는 데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sup>223)</sup> 칼빈의 입장은 중생 된 이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결이란, 성결 그 자체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성결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자들이 하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되는 길에 불과하다<sup>224)</sup>라는 생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구원의 서정이란 그것이 강조하는 것이 구원에 있지 않고, 구원의 서정(*ordo, modus*)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먼저 그것은 우리의 선행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우리의 선행 행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생각할 때, 인간의 공로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선행의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누는(*inter Deum hominem partimur*) 그런 식이 아니라, 그것은 전부 온전히 통채로(*totam integram illibatam*) 주님께 돌리는 그런 공로이다.<sup>225)</sup> 이로 미루어 볼 때, 칼빈의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특별히 인식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아무리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그에게서는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은 어떤 것이 나오는 법이 없고, 인간이 가진 것이나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주받을 것이라고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런 것은 죄 뿐이고 그런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것이어서 인간들의 모든 의를 전부 합한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의 죄에 대한 보상도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 있다하더라도, 그들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이런 가치를 부여

222) 교회관, I, 99 재인용.

223) *Ibid.*, I, 97.

224) *Ibid.*, I, 100: "Sic nihil erit incommodi, si vitae sanctitatem existimemus esse viam, non quidem quae ducat, sed qua electi a Deo suo in gloriam regni coelestis ducantur".

225) *Ibid.*, I, 95.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sup>226)</sup>

그런 이유들 외에도 칼빈에게는 예정론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있다. 즉 신자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시작을 찾지 않고, 창세 전에 우리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칼빈은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다루는데, 각 사람의 불의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제1사용과 하나님의 보복과 형벌, 사망과 심판을 선언하여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고 공공의 안녕을 대비하여 폭력적인 혼란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제2사용과 중생된 신자들에게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철저히 배우도록하시는 제3사용에 대해서 다룬다.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완전한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거울의 역할을 할뿐이라는 것이다. 즉 근원적으로 그 자체를 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227)</sup>

특히 그의 기독교강요 초판 헌사에서 칼빈은 자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대답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가 모든 덕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옷을 입어야 하는 별거숭이들이고, 모든 선에 있어서 그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하는 공허한 자들이며,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 죄의 종들이며, 우리는 그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할 눈먼 자들이며, 우리는 그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할 절음발이들이며, 우리는 그로부터 지탱함을 받아야 할 연약한 자들임을 알아, 오직 그만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만큼 믿음에 더 좋고 합한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다.<sup>228)</sup> 이런 물음에서 한 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우리

---

226) 교회관, p. E-6.

227) 교회관, p. E-7.

228) 교회관, p. E-11. 재인용. Institutio 1536, Praefatio, 10-11: "Quid enim melius atque aptius fidei convenit, quam agnoscere nos omni virtute nudos ut Deo vestiamur, omni bono vacuos ut ab ipso impleamur, nos peccati servos ut ab ipso liberemur, nos caccos ut ab ipso illuminemur, nos claudos ut ab ipso dirigamur, nos debiles ut ab

가 죄인으로 깨닫는 신학적 인간론의 근거가 제시되고 그 지식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칼빈의 경건과 예배의 본질이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즉 그런 인간에 대한 지식과 분리될 수 없는 최고선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한 것으로, ‘우리로부터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은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 이외에 공허한 영광으로 다른 근거로 강탈당하지 아니하는 것<sup>229)</sup>이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선과 덕과 의, 지혜의 순수한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한다.<sup>230)</sup>는 것이다. 또한 비록 물음의 방식이지만 성도의 진정한 안식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요 유화자(propitiator)로 인식되는 곳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화 된 아버지로(propitium patrem) 약속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시되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의 사랑에서 나오는 기쁘고 행복한 모든 것들(omnia laeta ac prospera)을 그로부터 걱정 없이 기대하는 것, 그 안에 그렇게 많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르고 생각하는 곳에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 가운데 안식하는 것보다 믿음에 더 합당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믿음을 표현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요17:3)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다.<sup>231)</sup>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죄인으로서 인간에 대한 지식과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틀은 바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대적자들이 인도할 수 없는 자연의빛(lumen naturae)과 허구적 예비들(fictas preparaciones),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와

---

ipso sustentemur, nobis omnem gloriandi materiam detrahere, ut solus ipse glorificetur et nos in ipso gloriemur?

229) 교회관, E-11. "At, ut nihil de nobis, ita omnia de Deo praesumenda sunt, nec alia ratione vana gloria spoliatur, nisi ut in Deo gloriemur.

230) 교회관, E-12. "integram omnis boni, virtutis, iustitiae, sapientiae laudem ac gloriam apud Deum resideere.

231) Loc., cit.



공로(merita)를 부정하지 못한 것과 대립되고 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자신 안에 그의 의와 덕, 생명과 구원을 찾을 이유가 남아 있지 않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그 유일한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따를 때는 불행, 우둔함, 죄악, 죽음, 마지막으로 지옥 자체만이 발견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율법에 대한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교리를 두 부분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룰 때, 하나님 자신이 무한한 지혜, 의, 선, 공훈, 진리, 덕과 생명이시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다른 지혜, 의, 선 공훈, 진리, 덕과 생명도 없다고 하며, 이런 것들 중 어느 것을 어디에서 기대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sup>232)</sup>고 하였던 것이다. 반면 “우리의 죄책은 우리를 묶는 우리의 죄의 결과이며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행할 수 없다고 하고, 참으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의 죄책에 속한 것들을 행하려고 하거나 행할 수 없는 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 이외에서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하였던 것이 죄용서 이었다고<sup>233)</sup>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죄로 인하여 긴 간격으로, 그로부터 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연결하셨고 한다. 자신의 죽음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빚을 탕감하였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죄의 형벌을 그의 몸 에 담당 하사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하셨다.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실 때에 하늘의 은택들의 모든 보화, 즉 성령의 선물들을 가져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중생 되고 마귀의 권

---

232) Institutio 1536, I, 42-43: “Primum, ut certa fide constitutum habeamus, ipsum infinitam esse sapientiam, iustitiam, bonitatem, misericordiam, veritatem, virtutem ac vitam: ut nulla sit prorsus alia sapientia, iustitia, bonitas, misericordia, veritas, virtus et vita(Bar.3, Iac. 1). Et quidquid earum rerum ubivis spectatur, ab ipso sit(Prov.16)

233) 교회관, E-12에서 재인용. Ibid., 47-48.

세와 사슬로부터 해방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로 채택되고 모든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성화 된다는 것이다. 역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부패된 정욕들, 육체의 욕망들과 우리 본성의 뒤섞이고 부패된 왜곡된 것들을 낳는 것은 무엇이든지 죽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거닐며 의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간다”<sup>234)</sup>고 하였다. 이 모든 것들, 즉 죄의 은혜로운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 성령의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되고 선물되었다는 칼빈의 논리이다.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고 선물되는 역사에 관해서 칼빈은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자신이 항상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자로서 성부의 영원하고 유일한 모사(aeternus ac unicus patris consiliarius)이셨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omnes scientiae et sapientiae thesauros)을 동시에 그 안에 감추셨던 대로 그는 그렇게 성부로부터 받는다”<sup>235)</sup>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그런 그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미련한 자일지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

234) Ibid., I, 48-49: “... propter Iesum Christum Dominum nostrum, qui unus cum patre Deus cum esset (Ioan. 1), carnem nostram induit, quo nobiscum foedus iniret, ac Deo nos proxime adiungeret, quod peccat, longo intervallo ab eo distraxerant (Ies. 53). Hic mortis etiam suae merito, iustitiae Dei debita nostra persolvit, iramque eius placavit a maledictione ac iudicio, cui obnoxii eramus, nos redimens, ac peccati poenam in corpore suo perferens, ut ab ea nos solveret (Eph. 2, Col. 1). Hic omnem coelestium benedictionum opulentiam in terras descendens secum attulit, quas in nos larga manu effunderet (Ioan. I. 7. Rom. 8). Sunt autem dona spiritus sancti: per quem regeneramur, e diaboli potestate et vinculis explicamur, in filios Dei gratuito adoptamur, ad omne opus bonum sanctificamur; per quam etiam, quamdiu in hoc mortali corpore tenemur, emoriuntur in nobis pravae cupiditates, carnis desideria et quidquid naturae nostrae contorta corruptaque perversitas gignit; per quem de die in diem renovamur, ut in novitate vitae ambulemus ac iustitiae vivamus”.

235) Institutio 1536, VI, 424.

지혜이며,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며, 우리가 정결치 못한 자일지라도, 그 자신이 우리의 순결이며, 우리가 무기도 없이 사탄에 맞서는 연약한 자 일지라도, 그가 우리를 위해 사탄을 부서뜨리고 지옥문을 파괴하시도록 하늘과 땅에서 친히 받으신 권세가 또한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 지금 죽을 육체가 우리를 둘러 있을지라도, 그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다시 말해,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우리 안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sup>236)</sup>라고 하는 것이다. 후에 이런 개념들의 정확한 적용의 예가 성도의 칭의에 대한 칼빈의 이해에서 현저히 찾아 볼 수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에 의해서(*sola intercessione iustitiae Christi*)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의인으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에(*imputatione*) 의해서 그와 더불어 나누어지는 것이기(*communicatur*) 때문이라고 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의가 있고 그의 모든 부요한 것들(*omnes eius divitias*)을 그와 더불어 소유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에 참여자(*participes*)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전가의 법칙에 따라 주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우리와 나누신다(*communicat*)<sup>237)</sup>고 표현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구원의 서정이란 남아 있는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의 전적인 전가<sup>238)</sup>에 불과하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요 그

---

236) *Institutio* 1536, I, 92: Hoc parum est; quod talem eius participationem adepti, utcunque simus adhuc in nobis stult, ipse nobis coram Deo sapientia est; ut peccatores simus, ipse nobis iustitia; ut immundi simus, ipse nobis puritas; ut infirmi simus, ut inermes et satanae expositi, nostra tamen est quae ipsi data est in coelo et in terra potestas, qua pro nobis satanam conterat, et inferorum portas confringat; ut corpus mortis adhuc nobiscum circumferamus, ipse tamen nobis vita est. Breviter quod omnia illius nostra sunt, et nos in illo omnia habemus, in nobis nihil”.

237) *Institutio* 1539, VI, 191.

238) *Institutio*, 1536, I, 87-88.

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효과적 적용이 있다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는 신자들의 죄에 대한 유일한 만족이요 속죄이며 순결<sup>239)</sup>이라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넓게 최고선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

239) Institutio 1536, V, 358; "Christi sanguinem unicam esse pro fidelium peccatis satisfactionem, expiationem, purgationem, quid superest, nisi purgatorium meram esse in Christum blasphemiam?."

## C. 율법의 제 3 사용과 인간에 관한 지식

### 1.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a. 율법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율법의 용법을 루터주의처럼 죄를 지적하고 죄를 억제하는 율법의 제1 사용과 제2 사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생 된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삶의 규범(regula vivendi)으로서 이해하였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신학을 인간 중심에서 이루어 가는 루터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 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며, 또한 이것은 성도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정해 주는 중요한 신학적 이해가 된다고 하겠다,<sup>240)</sup> 칼빈은 율법의 제3사용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중생 된 성도에게 영원한 삶의 규범으로서 자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에 성도는 철저히 인간적 규범은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

---

240) 바빙크는 루터주의와 개혁주의의 중요한 차이점을 인간론과 신론적 방식에서 찾고 있다. 즉 루터주의는 입장은 구원사의 중심에서 취하고 하나님의 성정까지 꿰뚫고 들어가지 않으며, 그리고 칭의를 교회의 항존적이고 항상 출발하는 조항으로 삼으며, 또한 어떻게 인간이 축복에 이르는가를 중요한 관점으로 취해서 결국 현상(0)에 만족하고 그가 신앙을 통하여 부여받은 축복에 안락하는 자들이다. 이에 반해서 개혁주의는 역사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념 즉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까지 올라가며, 선택이 교회의 핵심적 원리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이르시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에 되돌리고 물(物)의 원인을 추적하며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 되게 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 정신이라고 한다.(Herman Bavink, 개혁주의 교의학, 김영규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1996,p.208)

릴 수 있으며, 또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율법의 의미 규명하였다.<sup>241)</sup>

b. 율법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상의 기관으로 정의된다.

칼빈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는 것으로 율법의 제3사용의 주된 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중생한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들이 열망해야 하고 그 지식 안에서 견고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더 잘 그리고 더 확실하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최상의 기관으로<sup>242)</sup> 율법을 정의하였다. 즉 율법의 제3사용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다스리시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에 대해 더욱 더 엄숙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그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지만(렘31:33, 히10:16), 그들은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움직인 자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율법에 의해 유익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더 철저히 배우게 되기 때문이<sup>243)</sup> 라고 정의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칼빈은 “기독교인의 자유“에서도 율법의 제3사용의 의미의 적용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회적, 생활적인 적용으로 실천적 의미를 뜻하고 있다. 그는 만약 양심이 이 문제에서 어떤 확신을 얻기를 바란다면,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로부터 어떤 사람도 정당하게 율법은 신자들에게 불

---

241) 기독교강요, p.501.

242) *lex est enim illis optimum organum quo melius in dies ac certius discant qualis sit Domini voluntas, ad quam aspirant, atque in ejus intelligentia confirmantur.*

243) 신원균, 「칼빈의 제시한 율법의 제3사용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고찰」 논문, 1997년, 이하 제3사용. 기독교강요, 1559년 판, 7.6-15. 재인용,

필요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율법이 신자들의 양심에서 아무 몫도 차지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부단히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 선을 행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전 삶은 경건의 연습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성결을 위하여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sup>244)</sup>

이러한 실천적 의미는 율법이 기독교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 되어 성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 준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속에서 율법이 일반법률의 원리가 됨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는 순수한 신앙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단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족속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규정된 참되고도 영원한 의의 법칙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로 경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뜻이기 때문이다.<sup>245)</sup> 이러한 의미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며 말하고 적용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율법의 제3 사용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이 율법은 성도들의 자유를 제공하며, 또한 사람들의 사회법으로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기초가 됨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칼빈은 확신하고 있다.

c.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다.<sup>246)</sup>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을 더 높이 들어 올려 고양(高揚)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시려는 것

---

244) 제3사용, p. 6. 기독교강요(1536), p.326.재인용.

245) 기독교강요(1559), 4. 15.

246) 기독교강요, p 501.

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다. 즉 율법을 주신 것은 선민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려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출현시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며 그들의 기대를 강화해서, 오래 지체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한다.<sup>247)</sup>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높이 들어올리시려는 것이 목적이신 것이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유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알리며, 거울과 같이 우리의 죄 많음을 밝히 보여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 하도록 인도한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기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약하여 피로할 때에, 율법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도움을 구할 줄 알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유약을 깨닫게 하며 그 대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율법은 명령하고 은총은 실천력을 공급합니다 라고 하였다.<sup>248)</sup> 또한 그는 다른 글에서도 ”우리가 할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고, 또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며, 책망을 받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므로 용서를 빌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감히 행동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다. 또한 위대한 체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며, 우리 자신에게는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빈궁한 우리가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려는 것<sup>249)</sup>이라고 하였다.

d.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율법의 제 1 기능은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작용한다. 버림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 사람의

---

247) 기독교강요, p.502.

248) 기독교강요, p. 512.

249) 기독교강요, p.513.



불의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제 1사용은 심판이 아직 나타나지 않더라도 율법과 양심의 증언으로 죄를 탄로시킨다. 율법의 제 2기능은 행악자들과 불신자들을 억제 시켜 사회를 보호한다. 율법의 제 2 사용은 적어도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일으켜 일부 사람들을 억제한다. 즉 하나님의 보복과 형벌, 사망과 심판을 선언하여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여 공공의 안녕을 대비하며 폭력적인 혼란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sup>250)</sup> 칼빈은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갈 3:24) 라고 한 말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는 유덕하고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엔 부적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들이 자기의 불행을 깨닫게 해서, 그들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자기에게 없는 줄을 몰랐던 것을 구하게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굴레가 필요하다. 그들은 육의 정욕이 날뛰는 대로 버려 두어 의를 전혀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에 굴레로 억제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아직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욕이 몹시 끓어 올라 영혼을 결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멸시하는 상태에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상속시키기로 정하신 사람들을 즉시 중생시키지 않은 때에는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공포심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신다.(참고 뵤전2:12) 이 공포심은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는 데 유용한 공포심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암중모색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율법이 굴레가 되어 하나님께 두려움과 공경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성령으로 중생해서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sup>251)</sup>이라고 했다.

율법의 제 3사용이라고도 하는 셋째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칼빈은 보았다. 이 제 3 사용의 기능이 율법의 중심적인 목적에 가

250) 칼빈의 교회관의 신학적 의미, p. E-7.

251) 기독교강요, p. 515.

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용도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영혼 속에 사시며 주관하시는 신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들은 두 가지 방면에서 율법의 혜택을 입는다. 그것은 그들이 앙모하는 주의 뜻의 성격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 데 율법은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율법에 대해서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열성을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면 범법의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율법이 여전히 부단한 자극이 되어 일시도 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윗도 율법을 찬양할 때 이 용도에 대해 언급했다.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시 19:7)라고 하였다. 예언자도 율법의 위대한 이용가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종심을 불어넣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읽을 때에 그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선포하였다. 예언자는 교훈뿐 아니라 거기에 동반하는 은총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다. 이 약속만이 쓴 것을 달게 만든다고 하였다. 칼빈은 만약 율법이 명령과 위협만으로 사람의 영혼을 무섭고 놀라게 하여 괴롭고 슬프게 만든다면, 율법보다 더 싫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다윗은 특히 율법에서 중보자를 인식했다는 것을 알린다. 중보자가 없으면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다고 하였다.<sup>252)</sup>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의 교훈은 여전히 범할 수 없는 것이 되어 가르치며 경고하며 책망하며 시정하므로써 율법은 우리가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며 준비시킨다<sup>253)</sup>고 하였다.(딤후 3; 16)

#### e. 율법의 제 3 사용과 인간의 지식과의 관계

율법의 3사용의 용도가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영혼 속에 사시며 주관하시는 성도들 사이에서 발견 되는 신자들에게 이 기능이 적용

252)Ibid., p. 517.

253)Ibid., p. 519.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런 용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화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도하신 중요한 결정인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종심을 불어넣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읽을 때에 그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다. 즉 칼빈은 율법의 제3사용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가는 삶의 규범으로서 중생된 이후에 성화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율법의 특성을 실제적인 적용의 내용으로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는 신앙의 삶이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신자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율법의 사용은 변치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율법의 제3사용은 의미가 깊다. 칼빈은 에스겔18:8절을 주석 하면서 이자에 대한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을 드러내고 있다. 즉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제시된 규범이 오늘날도 인간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규범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윤리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제3사용의 정신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이것은 생활의 문제들도 일반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교훈에 따라서 철저히 이해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규범에 따라서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또 의롭게 여겨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일치되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나 고 묻는다면 선지자는 '진리 수행' 이라고 대답할 것이"<sup>254</sup>라고 확실한 의미를 전해 주고 있다. 여기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의 말씀 밖에서는 절대로 찾지 않고 또한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으

---

254) 제3사용, p. 21. Comm, vol.23.p.264. 재인용.

며 또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고, 바로 그와 같은 정신과 삶을 신자의 삶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sup>255)</sup> 특히 신자의 삶에 있어서 율법에 나타난 것 이상의 의나 정직의 표준이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율법의 제3사용에 관련하여 인간의 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충만하고 완전한 의와 진리의 규범을 주셨다.

둘째, 제3 사용을 통하여 신자에게 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며 또한 궁극적인 기쁨이다. 신자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셋째, 3 에게 있어서 율법이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기초로 하여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이다.

넷째, 신자가 제3사용의 방식으로 율법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만 신자들과 관계하시기 때문이다. 즉 외적인 교훈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내적인 은혜를 통해서 신자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이처럼 율법의 제3사용의 의미는 단순한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가르쳐지고 적용되어지는 매우 실천적인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적용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55). CO IX, 703: iusd (non) bonorum omnium pace ac venia facturos confidimus, si Deum nusquam nisi in eius verbo, nihil ipso cogitemus nisi cum eius verbo, de ipso nihil loquamur nisi per eius verbum.

### Ⅲ.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어거스틴과 칼빈은 원죄에 의하여 전달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본성은 전적 타락과 완전 부패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회복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추구할 수 없으며, 선에 대한 인간의 의지조차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상은 세속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이방세계의 잘못된 인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의지에 대한 잘못된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이런 철학적이고 세속적인 자유의지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그런 자유의지는 없다고 부정하였다. 선행과 악행을 우리의 힘으로 좌우 할 수 없고,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어 전인이 죄에 대한 노예상태로만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서 나오며, 인간이 선한 의지로 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영적인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선행의 처음 부분은 의지이고 다음은 그것을 성취하는 강한 노력이라고 하여도 그 두 부분은 모두 그 근원이 하나님이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나 성취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우리가 주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아닌 주께서 우리 안에서 선행을 시작하시며 또 완수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바른 일을 사랑하고 열렬히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려고 분발하며 움직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과 열심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나, 끝으로 이 모든 일을 사람이 꾸준히 계속하며 최후까지 견인 분발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선한 의지를 갖는 것도

다른 은총이 앞선 은총에 더해지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긴 역사 가운데 항상 인간이 받는 인간론에 관한 유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행을 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의지는 노예의지뿐인 것이다. 이 의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상급으로 주신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은 감추어진 상태로 인간이 스스로 누리는 것처럼 사는 영원한 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즉 인간의 가치는 인간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해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뜻과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인간의 고귀한 가치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부와 보상으로 있는 인간으로 발전할 때만이 인간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간으로 만드는 데까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그런 하나님의 은총들의 가장 고귀한 틀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저 주신 은총들을 인간 스스로 누리는 것처럼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틀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추어진 상태로 인간 스스로 누리는 것처럼 사는 영원한 틀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깊은 하나님에 지식에 의한 인간에 대한 통찰만이 인간에 대한 모든 물음과 그 삶의 의미와 그 가치와 또한 미래까지 완전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의 지식이 구약 백성에게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을 율법의 기능을 통해 통찰할 수 있다. 율법의 제 1,2, 사용과 제 3 사용에서 중생한 이후 성도들의 실천적 삶의 내용과 그 수준과 가치를 제시하여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같이 인간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깨지고 그 다음에 가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혼란한 시대 상황 가운데 시대 정신과 흐름에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시대의 물음에 그 답을 주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에 대한 통

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결국 인간이란 그들이 천성적으로 지각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이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게 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 이상을 알기 위해서는 신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얻게 된다.

## 참고문헌

### I. 1차 자료

- 칼빈, 존. 「기독교강요」, 김종흡외 공역, 생명의 말씀사, 1986.
- 칼빈, 존. 「영·한 기독교강요」, 편집부 역. 기독교성문출판사, 1990.
- 칼빈, 존. 「칼빈성경주석」, 존칼빈성경주석 편찬위원회 역, 성서교재사, 1993.
- 칼빈, 존 「존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 외역, 생명의 말씀사, 1991.
- Warfield, B.B., 「칼빈 루터 어거스틴」,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역, 기독교문화협회. 1993.
- 마틴 루터, 「루터 저작선」, 이형기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 Young-kyu Kim, *CALVIN UND DAS ALTE TESTAMENT: Sola scriptura und der trinitarische Gott als alleiniger Autor des Alten Testaments*, seoul, 1994.

### II. 2차 자료

- 아우구스티누스, 「은혜론과 신앙론」, 김종흡역, 생명의 말씀사, 1990.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4.

김성봉의 지음, 「성령과 교회」, 도서출판 하나, 1996.

윌리스턴 워커, 「기독교교회사」,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조셉 하로투니언 「칼빈주석의 정수」, 이종태 역, 생명의 말씀사, 1994.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Ⅲ. 논문

김영규, “신학과 현대과학”, 개혁주의 성경연구원, 2001년.

\_\_\_\_\_, “기독교강요 강독”, 개혁주의 성경연구원, 2000년.

\_\_\_\_\_,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년.

\_\_\_\_\_, “교회관에 있어서 칼빈의 신학적 발전과 그 의미”(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개혁주의 성경연구원, 2003년.

\_\_\_\_\_,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교회관에 있어서 칼빈의 신학적 발전과 그 의미”, 2003년.

신원균, “칼빈의 제시한 율법의 제3사용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 고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7년.

윤석주, “개혁신학의 인간론 중 칼빈의 인간론” 조직신학회 동계 세미나, 2001년.

#### IV. 주석

J. Cavin, 창세기Ⅱ 주석,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성서교재간행사, 1980.

\_\_\_\_\_, 이사야Ⅳ 주석,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성서교재간행사, 1980.

\_\_\_\_\_, 시편Ⅳ 주석,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성서교재간행사, 1980.

\_\_\_\_\_, 로마서 주석,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성서교재간행사, 1980.